

이름없는 이들이 다져가는 겨레사랑의 자리

# 우리말 우리얼

제 95 호 2017년 10월 10일

## ◀ 차례 ▶

(발표문) 2017년 우리말 지킴이와 헤살꾼 .....	2
2017년 우리말 지킴이들 .....	4
2017년 우리말 헤살꾼들 .....	8
나리꽃 권정생 .....	13
자기소개서 왕우선 .....	14
오락가락 뜻풀이는 이제 그만 최종규 .....	16
조선동의어사전 리현태 .....	21
농사말 바르기 쓰기 이오덕 .....	31
문법을 지키지 않는 겹말들 미승우 .....	43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 권순채 .....	56
한국 토종 이야기 홍석화 .....	69
이런 책을 읽지 맙시다 이정우 .....	80
알립니다 .....	104

**펴낸 곳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화: 010-4715-9190(이대로)

**주소 :**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356번지 이오덕학교 / 전화: 043-844-6622

**전자우편 주소:** 25duk1@daum.net, idaero@hanmail.net

**누리집 주소 :** 우리말 우리얼 <http://cafe.daum.net/malel>

[발표문]

## 2017년 우리말 지킴이와 헤살꾼

우리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빼고,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한자와 영어 조기교육을 외치다가 얼빠진 나라가 되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봤다. 우리 겨레 얼이 담긴 우리말이 외국말에 짓밟히니 나라가 흔들리고 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우리 기업은 국제 투기자금에 넘어가니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 꼴을 보면서 우리 얼과 말글을 살리고 지켜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1998년에 우리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말과 얼을 살리고 지키려고 “우리말 우리얼”이란 모임 회보를 내면서 해마다 한글날에 우리말과 한글을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말 ‘지킴이’로 뽑고, 한자와 영어를 섬기는 이들은 우리말 ‘헤살꾼’으로 뽑는 “우리말 지킴이와 헤살꾼 뽑기”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19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써서 한자 섬김 이들은 줄었는데 영어 섬기는 이들이 늘어나 우리 말글살이가 몹시 어지럽다. 어린이 잡지 이름까지도 영문 일색이고, 거리의 간판이 영문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엔 중앙 정부부처 이름에 외국어가 들어갔다.

오늘날 이런 영어 섬기기는 1500년 전 신라가 중국 한문과 문화를 섬기다가 중국 문화 결가지로 만들어 언어사대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것과 닮았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쓰러트리려고 당나라 식으로 관직 이름과

땅이름, 사람 이름까지 바꾸면서 중국의 문화 속국이 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간신히 그 한문과 한자로부터 해방되나 했더니 오늘날 미국말로 상품과 회사이름을 바꾸고 정부 조직이름까지 영어가 들어갔다. 마치 통일 신라가 중국을 섬기는 그 꼴이다.

이런 꼴을 막으려고 국어기본법도 만들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들었지만 점점 외국어 간판이 늘어나서 이제 기업이나 가게 이름을 미국말로 짓고 영문 간판을 다는 것을 탓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법이 없어도 제 말글을 사랑하고 바르게 써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국민 수준이 아니다, 이제 정부와 학교에서도 말장난하고 있다. 말글살이가 어지러우면 그 사회가 어지럽다. 법이 없어도 제 겨레 말글을 지키고 빛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말을 지키고 살려야 할 판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아무리 나라를 지키려고 애써도 안 되면 포기하거나 자결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말이 살고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우리말 지키기와 해살꾼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우리 얼말글 지키는 일을 함께 하길 호소한다.

571돌 한글날을 앞둔 단기 4350(2017)년 10월 7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김경희, 고영희, 노명환, 박문희, 이대로, 이정우, 임경희

## 2017년 우리말 지킴이들

### ◇ 우리말 으뜸 지킴이 - 홍익대 안상수 명예 교수

안상수 교수는 1985년에 한글 글꼴을 네모꼴에서 벗어나 ‘안상수체’라는 글꼴을 개발해서 새로운 한글 글꼴을 개척한 분이며, ‘디자인’이라는 말도 우리말로 ‘멋지움’이라고 바꾸어 말하는 교육자요 우리말 지킴이다. 안 교수가 새로운 한글 글꼴을 멋지게 만들면서 많은 활자체연구자(타이포그래피)들이 따라서 새로운 글꼴을 만들었다. 안 교수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우리 감정과 정서가 담긴 우리 문화의 꽃이라고 보고 새로운 한글 멋지움을 개척한 선구자이며 철저한 자주 정신으로 우리말과 한글을 빛내는 참된 교육자다.



굵은안상수체

가는안상수체

고  
춧  
춧  
춧  
춧

요--리 쪼리 베면 저그리 되고,

이--러케 베면 큰충되지.

그래서 안 교수 제자들 가운데 한글과 우리말을 사랑하는 학자와 ‘멋지움꾼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왔다. 이 분은 세종의 자주, 창조 정신으로 한글 글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멋진 글꼴을 만들어 냄으로서 세계에서 이름난 멋지 음꾼이 되었다. 우리 것을 사랑하고 빛내고 그 바탕에서 세계로 나가는 학자, 전문가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기에 많은 사람이 본받기 바라면서 그 고마움을 표하는 뜻에서 올해 우리말 으뜸 지킴이로 뽑았다.

## ○ 우리말 지킴이 - 여주시 (시장 원경희)

여주시에 세종대왕릉인 영릉이 있다. 그런 인연으로 여주시는 세종대왕과 한글을 기리는 행사를 많이 한다. 특히 원경희 시장이 민선6기 여주시장을 맡 으면서 시작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세종대왕’과 ‘한글’을 통해 뛰어나고 이름난 ‘여주’를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해마다 한글 날에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행사를 많이 한다.



올 571돌 한글날을 맞이해서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세종대왕릉에서 한글날 문화제를 열고, 2018년 제1회 세종대왕문화제 준비 모임으로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책나루터.책잔치’ ‘외국인 세종골든벨’, ‘한글디자인포럼 및 전시’, ‘세종행복나눔축제’ 등을 연다고 한다. 우리말이 살려면 한글을 빛내야 한다. 한글이 빛나려면 중앙 정부도 잘해야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잘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본받기 바라며 우리말 지킴이로 뽑았다.

## ○ 우리말 지킴이 - 인사동 상가들

인사동에 미국 커피 회사인 ‘스타벅스 커피’집도 한글 간판이고 영문 간판은 찾기 힘들다.



우리 모임은 일찍이 2008년에 (사)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인사동 거리에는 외국어 간판이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나서서 외국 커피회사인 ‘스타벅스’ 회사 간판을 한글로 달게 했을 때에 (사)전통문화보존회를 우리말 지킴이로 뽑은 일이 있다. 그런데 9년이 지났는데도 인사동 거리엔 서울 명동거리와는 다르게 외국어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에 도이칠란트에서 온 동포 한 분이 인사동에 들렀다가 한글 간판이 많아서 정겹다면서 고마워했다. 외국 관광객들도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10월 6일 거리 간판을 살펴보고 인사동과 명동을 가 봤는데 명동보다 인사동에 사람들이 더 많았다. 영문 간판을 단다고 장사가 잘 되고 외국 관광객이 더 찾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거리 간판 글씨 모습은 그 나라 말글살이 모습이다. 제 말글이 있는데도 남의 말글을 더 좋아하는 것은 열 빠진 일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상가에 우리 말글로 간판을 달고, 어쩔 수 없을 때엔 법대로 한글과 함께 써주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전통문화와 우리 말글을 지키고 살리려고 애쓴 인사동 상인들을 칭찬하고 명동이나 다른 곳 상가들에게도 영문보다

한글간판을 많이 달기 바라면서 우리말 지킴이로 뽑았다.













### ○ 토박이말로 이름은 지은 ‘셋별초등학교’와 ‘한빛고등학교’



왼쪽은 담양 한빛고등학교 이름패, 오른쪽은 거창 셋별초등학교 교표이다. 우리나라 학교들이 거의 모두 한자를 쓰는 일본 식민지 때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학교 이름과 교훈이 한자말이고 학교 문패와 교훈이 한자말을 한문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절에 생긴 학교 가운데 우리말로 이름을 짓고 한글로 문패를 단 학교가 있다. 1964년에 생긴 거창 셋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주와 남양주 등 여러 곳에 셋별초등학교가 생겼다. 담양에 있는 한빛고등학교는 1997년에 생겼는데 이름이 좋아서인지 대전, 위례 운정 등 여러 곳에 한빛고등학교가 생겼다. 한빛초등학교는 더 많은 곳에 있다.

이 학교들은 교훈이나 교표도 우리말을 한글로 쓰고 있다. 여주에 ‘늘푸른자연학교’란 대안학교도 요즘 생겨서 자연 속에서 세종정신과 우리다운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나라 곳곳에 우리말로 이름을 지은 학교가 많이 나오고 우리말로 가르치고 배워서 훌륭한 한국인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말로 학교 이름을 지은 학교들을 우리말 지킴이로 뽑았다.

### ◇ 우리말 으뜸 해살꾼 -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회장	수석부회장
 크루셜텍(주) / 대표이사 <a href="http://www.cruciatec.com">www.cruciatec.com</a>	 김철영 미래나노텍(주) / 대표이사 <a href="http://www.mntech.co.kr">www.mntech.co.kr</a>
부회장	
 김영달 (주)아이디스 / 대표이사 <a href="http://www.idis.co.kr">www.idis.co.kr</a>	 박기오 (주)웰게이트 / 대표이사 <a href="http://www.welgate.com">www.welgate.com</a>
 박병기 (주)가산텔레콤 / 대표이사 <a href="http://www.kisantel.co.kr">www.kisantel.co.kr</a>	 박용후 (주)이디 / 대표이사 <a href="http://www.ed.co.kr">www.ed.co.kr</a>
 박윤민 (주)디스플레이테크 / 대표이사 <a href="http://www.displaytech.co.kr">www.displaytech.co.kr</a>	 박찬중 (주)코디에스 / 대표이사 <a href="http://www.kodis.com">www.kodis.com</a>
 이의준 (사)벤처기업협회 / 부회장 <a href="http://www.venture.or.kr">www.venture.or.kr</a>	 심재희 (주)엔텔스 / 대표이사 <a href="http://www.ntels.com">www.ntels.com</a>
 유종국 솔로몬사이언스 / 대표이사	 유태경 (주)루미스 / 대표이사

벤처기업협회 임원 회사들은 모두 우리말이 아니고 영문 이름이다.

우리나라가 1500년 전 신라가 관직이름, 땅과 사람 이름까지 중국 당나라처럼 짓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중국 한문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엔 신라 때처럼 회사이름, 가게 이름을 외국어로 지어서 우리말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정부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위 짝그림(사진)에서 보듯이 벤처기업협회 간부 회사 이름이 하나같이 영문이다. 위 본보기는 이 벤처기업협회가 제 나라말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기업이 모인 집단이라는 증거가 되겠다.

더욱이 이 협회는 올해에 중앙정부 조직 명칭에 “벤처”란 외국어가 처음 들어가도록 힘썼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만



들겠다는 내용이 있어 한글학회와 한글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외국어에 우리말이 몸을 얹고 있는데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서 민주당은 고 ‘벤처’란 외국어를 빼기로 했는데 이 협회가 앞장서고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백제현 의원이 거들어서 들어가게 했다.

정부 중앙부처 이름에 외국어가 들어간 일은 1500년 신라가 중국 당나라 직제 명칭과 지명을 그대로 본 따서 지은 것처럼 큰 사건이고 우리말을 못살게 한 일이다. 그래서 벤처기업협회와 장제원, 백제현 국회의원들을 함께 우리말 으뜸 해살꾼으로 뽑았다.

### ○ 우리말 해살꾼 - 경기도 부천 부명중학교 (교장 원유옥)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정부 공문서규정을 보면 문서와 광고문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외국 말글을 적어야 할 때엔 도립()안에 외국 말글을 적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은 말 할 것이 없고 기업 알림 글이 이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전부터 그 잘못을 알려주고 더 저지르지 말자고 호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점점 더하고 있다. 그 까닭이 학교에서부터 우리 말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위 찍그림(사진)은 경기도 부천시 부명중학교(교장 원유옥) 교문에 걸린 펼침막과 그 학교 누리집 첫 장에 뜨는 알림 글이다.

“참 主人되어 너DO 내DO 함께하는 행복한 부명인”이라고 쓰여 있다. 한국 말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다. 학교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런 글을 교문과 누리집, 교문 옆 게시판에 써서 선전하고 있다. 이 글은 학생들만 보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도 본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이런 것을 잘못이라고 알려주었는데 계속 그런다는 것이다. “안전R知”란 안전 홍보 문을 특허까지 내서 선전하기에 그것은 잘못이라고 알려주었더니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부명



### 부현 부명중학교 교문에 걸린 글



중은 몇 달 전에는 누리집에  
 저런 말장난 글이 없었으나 한  
 글날 며칠 전에 보니 뜨고 있다.  
 일부러 더 그러는 거 같다. 우  
 리 교육현장이 이 지경이니 나  
 라가 씩을 때로 씩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 우리말 해살꾼 - 명동상  
 가 영문 간판들



1970년대만 해도 명동 거리에서 영문 간판을 찾기 힘들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이 영어 조기교육을 한다고 떠들면서 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짓고 간판을 영문으로 다는 가게가 늘어나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표기 규정에 “광고 문은 어문규정에 따라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쩔 수 없이 외국어를 쓸 때엔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어서 영문 간판이 자꾸 늘어나 지금은 한글 간판을 찾기 힘들다. 옥외광고물 감독 책임기관인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어 그렇다.

2017년 10월에 찍은 찍그림을 보더라도, 더 이상 이대로 둔다면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말글살이가 망가질 거 같다. 나라가 망할 때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명동 상인들은 인사동 상인들이 전통문화보존과 우리 말글을 지키자고 외국어 간판을 안 다는 것을 본보고 따르기 바란다. 올 10월 6일 연휴 때 인사동과 명동을 가 봤는데 인사동에 사람이 더 북적거렸다. 영문 간판이 손님을 더 끄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엔제 우리다운 모습이 더 관광거리가 된다.

### ○ 방송 제목을 영어로 짓는 방송국들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썩어 가면 언론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글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언론이 외국말에 우리말이 짓밟히고 죽어 가는데 막지 않고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민영방송은 말할 것이 없고 공영방송도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방송 제목은 경쟁이나 하듯이 영어와 한자가 뒤범벅이다. “나이트 FOCUS, JTBC 뉴스룸, 채재 팩트, 명품리포트 脈, 데HOT한뉴스, 자연愛산다”들 끝이 없다. 한마디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 말장난을 국민은 날마다 보고 길들고 있다. 이 꼴을 정부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보고만 있다. 언론에게 밭보이면 안 되기 때문일까? 우리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말 해살꾼으로 뿔아 그 뜻을 전한다. 제발 우리나라 말글로 더 좋은 방송을 하라. 나라꼴이 이러니 미국, 일본, 중국이 우리를 깔보고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든다. 시청자들이 나서서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다. 그러기 전에 방송국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바로하길 호소한다. 언론만 잘하면 우리말이 살고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 나리꽃

권정생 동화작가

네덜란드는 튕립꽃의 나라라고 누구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어째서 그 나라엔 화려한 튕립꽃으로 뒤덮였는가 부러워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 일인데 그 화려한 튕립은 터키에서 아주 보잘 것 없이 자라는 들꽃을 가지고 가서 품종 개량을 거쳐 아름다운 튕립이 된 것이란다.

요새 우리 나라 꽃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네덜란드에서 백합이라고 하는 나리꽃 종자를 수입해서 심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나리꽃의 원조가 바로 한국의 산나리꽃이라는 것이다.

처음엔 약간 어이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나리꽃의 서양 이름이 떠올랐다. “릴리(lily)”라는 꽃 이름이 나리와

너무 닮았다. 일본에서도 “百合”이라고 쓰지만 부르기는 “유리”라고 한다. 나리, 릴리, 유리, 대체 나리꽃 이름의 고향은 어디일까?

일본에다 아는 분께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일본에도 <山梨>라고, 산 나리꽃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수꽃다리를 미국에 가져가서 세계에서 가장 향기 좋은 꽃으로 만들어 수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져다 정원수로 심는데 그 이름이 “미스킵 라일락”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꽃이 외국으로 가서 새롭게 둔갑을 거쳐 남의 꽃처럼 도로 가져다 구경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산나리꽃도 우리 손으로 훌륭한 꽃으로 개량되고 있다

니 다행이다.

훌륭한 꽃이란 본디 있던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도 품종 개량을 하겠다는 세상이지 않는가.  
(2001)

## 자기 소개서

왕우선 연변대학조선어전문학과 1학년

저는 연변대학교 16기생 조선어학과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왕우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부쩍 한국어 실력을 이제보다 더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는 조선족 대학교라서 어떤 전공과보다 조선어가 가장 유

명하고 이곳의 특색입니다. 조선어라고 하지만 제가 배우고 싶은 말은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중학생 때부터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을 선택하려 할 때 망설임 없이 이 학과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무언가 화려하고 색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

이란 나라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사실 한 성의 면적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한국에 언어를 배운다니. 호남에 사시는 부모님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어학을 한다면 차라리 다른 나라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제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지금은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저도 잘 압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좋지 못하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관계라면 지금의 한국은 역사에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온갖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 훌륭한 역사를 지낸 나라니까 지금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지 이제 겨우 일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글은 읽고 쓸 줄 압니다. 언어를 이보다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니. 이보다 쉬운 언어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뜻은 알지 못해도 읽고 쓸 줄 아니까 배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어의 흥미를 잃지 않고 날마다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에서는 일 년마다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고작 1년뿐인 유학이지만 가서 지내본 선배님들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왔습니다. 저도 올해 학습계획서와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볼 계획입니다. 면접이 잘 된다면 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벌써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것이 유창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한국어 능력시험도 보고 당당히 합격하려 합니다. 이것으로 중국과 한국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말사전을 살피면 오락가락하는 뜻풀이가 무척 많습니다. 한자로 된 낱말은 뜻풀이를 붙이면서, 텃말에는 뜻풀이를 안 붙이기 일쑤예요. 우리한테 텃말이 없다면 한자말이든

## 오랏가락 뜻풀이는 이제 그만

최종규 한국말사전 편집자, 우리모임 운영위원

영어이든 받아들여서 써야겠지요.  
그러나 텃말이 버젓이 있으나 텃말  
은 뒷전으로 밀어내고서 한자말만  
복돋우거나 앞세운다면?

이 터전에서 나고 자라며 살아온  
낱말을 조금 더 사랑하면서 찬찬히  
아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랏가락 뜻풀이는 이제 그만!” 하  
자고 외치려 합니다. 국립국어원에  
서 낸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돌아보면서 “오랏가락 말풀이”가 어  
떻게 있는지 차근차근 짚겠습니다.

수초(水草) : [식물] 물속이나 물  
가에 자라는 풀 ≡ 물풀

물풀 : [식물] = 수초(水草)

물속이나 물가에서 자라는 풀이  
라면, 말 그대로 ‘물풀’입니다. 들에  
서는 ‘들풀’이고, 멧골에서는 ‘멧풀’  
입니다. 바다에서는 ‘바다풀(바닷  
풀)’이고요. 사전 뜻풀이는 ‘수초 →  
물풀’로 고치고, ‘물풀’에 뜻풀이를  
붙여야겠습니다.

조류(鳥類) : 조강의 척추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 새  
무리

새무리 : = 조류(鳥類)

“조강의 척추동물”은 학문에서



쓰는 글월이기는 할 테지만, 아무래도 사람들 입이나 귀에 와 닿기 어렵습니다.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해도 되지 않을까요? 학문에서 ‘강’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갈래를 짓는다고 한다면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조강에 드는 등뼈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처럼 뜻풀이를 보탬 수 있습니다. ‘조류 → 새무리’로 뜻풀이를 고쳐야겠습니다.

질투(嫉妬) : 1.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異性)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 강샘 · 모질 · 투기 2.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강샘 : = 질투

시샘 : ‘시새움’의 준말

시새움 :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함. 또는 그런 마음

한자말 ‘질투’는 뜻풀이가 있으나 한국말 ‘강샘’은 뜻풀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샘 · 시새움’에는 뜻풀이가 붙어요. 이 대목에서 살짝 한숨을 돌립니다만 ‘질투 → 강샘’처럼 뜻풀이를 고친 뒤, 올림말 ‘강샘’ 자리에서 뜻풀이를 찬찬히 붙여야겠습니다.

기우(杞憂) :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옛날 중국 기(杞)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 것인가?’ 하고 침식을 잊고 걱정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군걱정

군걱정 : = 기우(杞憂)

쓸데없이 하는 걱정이라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를 줄여서 ‘군걱정’이라 하지요. ‘군것질’이나 ‘군말’이라는 말마디에서 엿볼 수 있듯

이 ‘군-’을 붙여서 쓸데없는 어떤 것이나 일을 나타냅니다. 한자말 ‘기우’만 뜻풀이를 붙인 사전 열개를 고쳐야겠습니다.

신-(新) : ‘새로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 : x

사전에 ‘신(新)-’은 앞가지로 나오지만, ‘새-’는 앞가지로 안 나옵니다. 알겠지요. 한국말 ‘새-’는 마땅히 앞가지로 올라야 합니다. ‘새마을·새마음’은 사전에 안 나와도 사람들이 대단히 흔히 써요. ‘새해·새달·새날·새집·새사람·새말·새길’ 같은 낱말은 바로 ‘새-’가 앞가지이기 때문에 짓습니다. 이밖에 ‘새책·새꿈·새넋·새돈·새글’처럼 새로운 낱말을 짓는 틀을 마련해야겠지요. 그 래야 한국말이 살아납니다.

한파(寒波) : [지리]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 한랭 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생긴다

추위 : 추운 정도

‘한파’뿐 아니라 ‘추위’에도 뜻풀이는 붙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엉성합니다. 텃말 ‘추위’는 이렇게 엉성한 뜻풀이여도 될까요? 한자말 ‘한파’만 길게 뜻풀이를 붙일 만할까요? 갑자기 추위가 닥친다면 ‘벼락추위·갑작추위’처럼 새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추위가 닥친다”고만 해도 추위가 갑자기 오는 걸을 나타내지요. ‘한파 → 추위’로 손질한 다음에 ‘추위’를 더 꼼꼼히 풀이해 주어야겠습니다.

심안(心眼) :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 마음눈  
마음눈 : = 심안(心眼)

마음으로 보는 눈이라고 해서 이를 한자말 ‘심안’으로 적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보는 눈이라면 마땅히 ‘마음눈’이라 하면 됩니다. ‘심안 → 마음눈’으로 고칠 노릇입니다.

조언(助言) :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또는 그 말 ≡ 도움말

도움말 : = 조언(助言)

노염(老炎) : = 늦더위

늦더위 : 여름이 다 가도록 가지 않는 더위 ≡ 노염(老炎)·만염(晩炎)

돕는 말이기에 ‘도움말’입니다. 그러나 사전 뜻풀이는 ‘도움말’ 아닌 ‘조언’에 뜻풀이를 붙입니다. ‘조언 → 도움말’로 뜻풀이를 고쳐야 합니다.

늦도록 가지지 않는 더위인 ‘늦더위’는 뜻풀이가 ‘노염’한테 안 밀립니다. 히유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늦더위’에 붙은 “≡ 노염(老炎)·만염(晩炎)”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전에 굳이 ‘노염 · 만염’을 실어야 할까요? ‘노염’이나 ‘만염’이라는 낱말을 꼭 써야 할까요? ‘늦더위’ 한 마디로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말은 사전에서 덜어야겠습니다.

양다리(兩-) : 양쪽 다리

양쪽(兩-) : 두 쪽

두다리 : x

두쪽 : x

“양쪽 다리”라는 ‘양다리’는 사전에 나오나, ‘두 다리’는 사전에 없습니다. ‘양쪽’이라는 낱말은 사전에 올라도 ‘두 쪽’이라는 낱말은 사전에

못 오릅니다. 이 뜻풀이와 올림말 열 개는 몹시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스스로 한국말을 깎아내리거나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다리가 둘인 모습을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을 놓고서 이쪽저쪽에 다리를 걸친다고 하는 모습을 빗대는 말은 ‘두 다리’라는 말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차가운 기운이나 느낌을 빗대는 자리에 쓸 낱말이 있을 테지요? ‘한풍 → 찬바람’으로 뜻풀이를 고친 뒤에, ‘찬바람 : 1. 겨울에 부는 차가운 바람 2. 차갑거나 싸늘한 기운이나 느낌을 빗대는 말’과 같이 뜻풀이를 손질해 주어야겠습니다.

스노리

한풍(寒風) : 겨울에 부는 차가운 바람. ‘찬바람’으로 순화

찬바람 : 냉랭하고 싸늘한 기운이나 느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찬바람’으로 고쳐 쓸 한자말이라는 ‘한풍’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찬바람’이라는 낱말이 따로 올림말로 있어요. 다만 사전에 나온 ‘찬바람’은 차갑거나 싸늘한 기운을 빗대는 말이라고만 합니다. 참 엉성합니다. 차갑게 부는 바람인 ‘찬바람’이라는 낱말이 먼저 있어야, 이 차갑게 부는

## 조선동의어사전

리현태 북한 사람

북한에서 쓰는 우리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본래 제목은 「조선어동의어사전」으로 1990년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입니다. 글쓴이는 리현태입니다.

우리말에는 단어의 뜻이 비슷한 단어들이 아주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뜻이 꼭 같으면서도 그 의미에서나 단어들이 합쳐지는데서 서로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어를 차례로 정리하고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그것을 쉽게 쓸 수 있는 사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 일러두기

이 <조선동의어사전>은 말소리가 서로 다르지만 뜻이 같거나 비슷한 어휘와 표현들을 따로 묶어 편찬한 작은 언어학사전입니다.

ㄱ

**값지다** [형] 값이 많이 나갈만큼 매우 쓸모가 있다. //값진 물건, 값진 세간살이

**쫄쫄하다** 옷가지나 물건 같은것이 실속이 있고 쓸모가 있거나 값지다.

**알지다** 《가치나 실속이 있다》를 비겨 이르는 말. //알진 물건, 알진 내용

· 알의 살이 많이 올라있다.

**알맹이지다** 《사물의 내용이 실

속있고 여무지다》를 비겨 이르는 말.

· 알맹이가 생겨 여물다.

**잡잘하다** 물건이 알속있고 값지다.

(입말체)

**알쫑하다** 《물건이 다른 허술한 것을 빼버리어 가치있고 귀중하다》를 비겨 이르는 말. //알쫑한 옷가지만 진사하다.

· 물건이 순수하다.

**꿀꿀하다** 《물건이 알쫑하고 값지다》를 비겨 이르는 말. //꿀꿀한 것으로 고르다

· 사람이 건실하고 똑똑하다.

**갓난아이** [명] 난지 얼마되지 않는 아이.

**갓난애기** 《갓난아이》를 보다 귀엽성스럽게 이르는 말.

**갓난애** 《갓난애기》의 준말.(입말체)

**갓난것** 《갓난아이》를 허물없이 속되게 이르는 말.

**갓난이** 《갓난아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

**강산** [명] 《강과 산》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자연이나 강토》를 이르는 말. //삼천리~

**강토** 나라의 령토. //아름다운 우리 조국~

**산천** 《산과 내》라는 뜻으로서 《나라의 자연이나 강토》를 이르는 말. //조국~, ~초목

**강의하다** [형] 의지가 강하고 굳세다. //강의한 마음을 먹다.

**굳세다** 의지가 변하거나 뜻을 굽힘이 없이 억세다. //굳센 마음, 굳센 투지

· 힘차고 튼튼하다 →튼튼하다.

**강하다** 굳세고 힘있다. //강한 마음, 강한 나라

· 굳고 단단하다. //강한 쇠 →굳다

**굳건하다** 의지나 사상이 굳세고 강하다. //굳건한 의지

· 사람이나 어떤 조직체 같은것이 강하고 튼튼하다. →튼튼하다.

**든든하다** 먹은 마음이나 의지가 나약하지 않다. //마음을 든든하게 먹다.

· 여무지고 굳세다. //튼튼한 몸  
→튼튼하다.

**단단하다** 《튼튼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무르지 않고 굳다.  
· 사람이 야무지고 몸이 튼튼하다.  
→튼튼하다

· 험겍거나 느슨하지 않다. //단단하게 잡아매다

· 틀림없고 미덥다. //단단한 약속  
· 보통수준의 정도보다 더하다. //단단하게 타이르다

**견결하다** 의지나 태도가 꺾끗하고 매우 굳세다. //견결한 혁명적 의지.

**억세다** 만만치 않게 힘차고 세다. //억센 투지

**굳다** 《의지가 강하다》를 비켜 이르는 말. //굳은 마음

· 외부적작용에도 건디는 힘이 세다. //굳은 나무

**강요** [명]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하는것. //~에 못이겨 응하다. (강요하다)

**우격다짐** 《남에게 억지로 강요

하는 것》을 이르는 뜻으로서 생활적으로 이르는 말.(우격다짐하다)

**욱다짐**=우격다짐.(욱다짐하다)

**강목다짐** 《우격다짐》달리 이르는 말. (강목다짐하다)

**갖추다** [동] 있어야 할 것을 골고루 가지거나 마련하다. //설비를 ~.

**마련하다** 있어야 할 것을 하나씩 구하여 갖추다. //일할 조건을 미리 ~.

**준비하다** 해야 할 조건을 마련하거나 갖추다.

**완비하다** 완전히 갖추다. //시설을 ~

**가득하다** [형] 마음씨가 하는 일이 장하고 기특하다.//가득한 마음씨

**기특하다** 마음씨가 행동이 마음에 들게 신통하다. //기특한 마음씨, 기특한 솜씨

**신통하다** 어떤 일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게 뛰어나다. //신통한 생각

· 신기할 정도로 묘하다.  
· 대책이나 조치, 약의 효과 등과

같은것이 보람을 나타내는것이 빠르고 신기하게 놀랍다.

· 살뜰한 정이 쏠릴만큼 짹짹하다.  
//신통하게 대해주는 마음씨 →삽삽하다

**신통스럽다** 보기에 신통한데가 있거나 매우 신통하다.

**가웃하다** [동]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다. //가웃하고 쳐다보다

**까웃하다** 《가웃하다》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끼웃하다** 《까웃하다》와 뜻이 같은 짹을 이루는 말로서 동작이 느리고 큰 대상의 움직임을 이르는 말.

**가울이다** 가울게 하다.

**까울이다** 《가울이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끼울이다** 《까울이다》와 뜻이 같은 짹을 이루는 말로서 보다 큰 대상의 움직임을 이르는 말.

**가우똥하다** 한쪽으로 좀 기운듯하게 기울이다. //가우똥하고 들여다보다.

**까우똥하다** 《가우똥하다》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기우똥하다** 《가우똥하다》와 뜻이 같은 짹을 이루는 말로서 보다 큰 대상의 움직임을 이르는 말. ※→가웃가웃하다

**가웃가웃하다** [동] 자꾸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다. //머리를 ~

**까웃까웃하다** 《가웃가웃하다》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끼웃끼웃하다** 《자꾸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여기저기 ~

**기웃기웃하다** 《끼웃끼웃하다》를 약하게 이르는 말. //기웃기웃하면서 들여다보다.

**가우똥가우똥하다** 자꾸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군하다.

**까우똥가우똥하다** 《가우똥가우똥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기우똥기우똥하다** 《가우똥가우똥하다》와 뜻이 같은 짹을 이루는 말로서 보다 큰 대상의 움직임을 이르는 말.

**가웃거리다** 자꾸 가웃가웃하다.

**까웃거리다** 자꾸 까웃가웃하다.

**끼웃거리다** 자꾸 끼웃끼웃하다.



**기웃거리다** 자꾸 기웃기웃하다.

**가우똥거리다** 자꾸 가우똥가우똥하다.

**끼우똥거리다** 자꾸 끼우똥끼우똥하다. ※→가웃거리다

**거나하다** [형] 술에 취한 태도가 어지간하다. //술에 거나하게 취하다.

**얼근하다** 얼얼할 정도로 거나하다. //얼근하게 취하다.

· 매워서 좀 얼얼하다. →얼얼하다

**알알하다** 《얼얼하다》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는 말로서 보다 약한 정도를 이르는 말.(→얼얼하다)

**얼찌근하다** 좀 얼얼하다. //얼찌근하게 취하다.(얼얼하다)

**알찌근하다** 《얼찌근하다.》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는 말로서 약한 정도를 이르는 말.(→얼얼하다)

**얼큰하다** 《얼근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얼얼하다)

**거드름(을) 부리다** [성] 거만한 행동을 어지간히 하다.

**거드름(을) 피우다** 거만한 태도를

몹시 나타내다.

**거들먹거들먹하다** 거만한 태도가 있게 함부로 거들거리다.

**꺼들먹꺼들먹하다** 《거들먹거들먹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거들먹거리다** 자꾸 거들먹거들먹거리다.

**꺼들먹거리다** 《거들먹거리다》를 보다 힘주어 나타내는 말.

**거들거들하다** 잘난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하다.

· 달리거나 붙어있는것이 힘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바람에 ~

**거들거리다** 자꾸 거들거들하다.

· 매달린 물체가 힘없이 흔들거리다. //나무밑둥이 ~

**꺼들거리다** 《거들거리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꺼들꺼들하다** 《거들거들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거들렁거들렁하다** 《거들먹거리다》를 보다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거들렁거리다** 함부로 거들거리다.

**꺼들렁꺼들렁하다** 《거들렁거들렁하다》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꺼들렁거리다** 《거들렁거리다》

를 힘주어 이르는 말.

· 달리거나 붙어있는것이 느리게  
이리저리 움직이다.

**거드럭거리다** 자꾸 거드럭거드럭  
하다.

**가드락가드락하다** 《거드럭거드  
럭하다》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는  
말로써 보다 작은 대상의 움직임을  
이르는 말.

**가드락거리다** 《거드럭거리다》  
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는 말로써 보  
다 작은 대상의 움직임을 이르는 말.

**억죽거리다** 잘난체하여 꺼드럭거  
리다.

**억죽억죽하다** 《억죽거리다》를  
보다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덩드럭거리다** 《거들먹거리다》  
를 보다 더 밉게 여겨 이르는 말. ※  
우쭐거리다, 건방지다 [형]

**거무데데하다** [형] 어울리지 않  
게 거무스름하다. /검정물이 거무데  
데하게 들어서 천이 곱지 못하다.

**가무대대하다** 산뜻하지 못하게  
거무스름하다.

**꺼무테데하다** 《거무테데하다》

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까무대대하다** 《가무대대하다》  
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거무끄름하다** 빛같이 산뜻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게 거무스름하  
다. //거무끄름한 비구름

**가무끄름하다** 빛같이 산뜻하지  
못하게 거무스름하다.

**거무끄름하다** 《거무끄름하다》  
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까무끄름하다** 《가무끄름하다》  
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검  
다, 거무죽죽하다, 거무직직하다, 거  
무땡땡하다, 거무테데하다

**거무땡땡하다** [형] 매우 거칠고  
어울리지 않게 거무스름하다.

**가무땡땡하다** 어울리지 않게 가  
무스름하다.

**꺼무땡땡하다** 《거무땡땡하다》  
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까무땡땡하다** 《가무땡땡하다》  
를 보다 강조하여 이르는 말. ※→검  
다, 거무테데하다, 거무죽죽하다, 거  
무트름하다, 거무직직하다, 거무테

테하다

**거무레하다** [형] 빛같이 진하지 않고 연하거나 옅게 거무스름하다.

//거무레한 연기

**가무레하다** 《거무레하다》와 뜻이 같은 짙을 이루는 말로서 보다 새뜻한 상태를 이르는 말.

**꺼무레하다** 《거무레하다》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몽게몽게 피여오르는 꺼무레한 연기

**까무레하다** 《가무레하다》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검다, 거무스름하다, 꺼무스름하다, 가무스름하다, 까무스름하다.

**거무속속하다** [형] 밝지 못하고 트인 맛이 없이 수수한 정도로 거무스름하다.

**가무속속하다** 《거무속속하다》와 뜻이 같은 짙을 이루면서 보다 새뜻한 상태를 이르는 말.

**꺼무속속하다** 《거무속속하다》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까무속속하다** 《가무속속하다》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검다, 거무점점하다, 거무직직하다, 거

무테테하다, 거무테테하다, 거무죽죽하다.

**거무스름하다** [형] 빛같이 조금 검다.

**거무스레하다** 빛같이 연하게 검다.

**검스레하다**=거무스레하다.

**검시르하다** 빛같이 어지간히 검다.

**거뭇하다** 빛같이 좀 검은듯하다.

**거뭇거뭇하다** 《거뭇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점점이 거뭇하다. →거뭇거뭇하다

**거밋하다** 좀 거무스름하다.

**거밋거밋하다** 《거뭇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점점이 거뭇하다. //얼굴들이 거밋거밋하게 타다 →거뭇거뭇하다

**거무늑하다** 빛같이 좀 거뭇하다. //거무늑한 땅

**검실하다** 좀 표나게 거무스레하다.

**거무송하다** 빛같이 좀 거무늑하다.

**검슴하다** 약간 거무스름하다. ※  
→검다, 가무스름하다, 꺼무스름하  
다, 까무스름하다

**거무접접하다** [형] 어둡고 트이  
지 않게 거무스름하다. //거무접접한  
얼굴.

**가무잡잡하다** 《거무접접하다》  
와 뜻이 같은 짙을 이루고있는 말로  
서 보다 작은 상태를 이르는 말.

**꺼무접접하다** 《거무접접하다》  
를 힘주어 이르는 말.

**까무잡잡하다** 《가무잡잡하다》  
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검  
다, 거무뎡뎡하다, 가무테테하다, 거  
무테테하다, 거머거머하다

**거무죽죽하다** [형] 빛갈이 고르  
지 못하고 거칠게 거무스름하다.

**가무죽죽하다** 《거무죽죽하다》  
와 뜻이 같은 짙을 이루면서 보다 작  
은 상태를 이르는 말.

**꺼무죽죽하다** 《거무죽죽하다》  
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까무죽죽하다** 《가무죽죽하다》  
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검  
다, 거무숙숙하다, 거무접접하다, 거

무직직하다, 거무테테하다, 거무테  
테하다

**거무직직하다** [형] 빛갈이 어둑  
하게 검다. //거무직직한 날씨

**가무칙칙하다** 빛갈이 어둑하게  
감다.

**꺼무칙칙하다** 《거무직직하다》  
를 힘주어 이르는 말.

**가무칙칙하다** 《가무칙칙하다》  
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거무충충하다** 빛갈이 검고 흐릿  
하며 침침하다. //거무충충한 구름장

**꺼무충충하다** 《거무충충하다》  
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검다,  
거무죽죽하다, 거무테테하다

**거무트름하다** [형] 산뜻하지 못  
하고 투박하게 좀 거무스름하다. //  
거무트름한 바위

**가무트름하다** 《거무트름하다》  
와 뜻이 같은 짙을 이루면서 보다 작  
은 상태를 이르는 말.

**꺼무트름하다** 《거무트름하다》  
를 힘주어 이르는 말.

**거머무트름하다** 투박하게 거무스  
름하다.

**가마무트름하다** 《거머무트름하다》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면서 보다 작은 상태를 이르는 말.

**꺼머무트름하다** 《거머무트름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까마무트름하다** 《가마무트름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검다, 거무테테하다 거무뎡뎡하다

**거무테테하다** [형] 빛같이 밍고 흐리게 거무스름하다.

**거무튀튀하다** 《거무테테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거무틱틱하다** 더 거무테테하다.

**꺼무튀튀하다** 《거무테테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꺼무틱틱하다** 《거무틱틱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까무퇴퇴하다** 《꺼무튀튀하다》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면서 보다 작은 상태를 이르는 말. ※→검다, 거무테테하다, 거무죽죽하다, 거무직직하다, 거무뎡뎡하다, 거무트름하다

**거무축축하다** [형] 빛같이 약간 축축하고 거무스름하다. //거무축축

한 부식토

**꺼무축축하다** 《거무축축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가무축축하다** 《거무축축하다》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면서 보다 작은 상태를 이르는 말.

**까무축축하다** 《가무축축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검다

**거뭇거뭇하다** [형] 빛같이 점점이(또는 여럿이) 거뭇하다.

· 매우 거뭇하다. →거무스름하다

**꺼뭇꺼뭇하다** 《거뭇거뭇하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가뭇가뭇하다** 《거뭇거뭇하다》와 뜻이 같은 짝을 이루면서 보다 작은 상태를 이르는 말.

· 매우 가뭇하다. →거무스름하다

**까뭇까뭇하다** 《가뭇가뭇하다》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검승검승하다** 빛같이 점점이(또는 여럿이) 좀 거무스름하다.

**깁승깁승하다** 《검승검승하다》를 힘주어 이르는 말.

**감승감승하다** 점점이(또는 여럿이) 감승하다.

**깜송깜송하다** 《깜송깜송하다》  
를 보다 힘주어 이르는 말. ※검다

- 다음 호에 이어갑니다. -



▲ 2017. 10. 10 화려한 나방 (장은결 11살)

## 농사말 바로 쓰기

이오덕 우리모임 창립위원

농민의 말을 누가 오염 시키는가  
다음 글은 지방의 주간신문으로  
서 매우 알차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주간홍성> (92년 10월 19일자)에  
실린 ‘농사정보’ 기사다. 이 자료는  
홍성군 농촌지도소가 내어준 것으로 되어 있다. 편리하게 한 항목씩  
따로 나누어 들었는데, 전체의 제목  
은 ‘마늘 재배 줄여야’이다. 밑줄을  
친 말이 문제가 된다.

### 『93년산 마늘 적정면적 재배의 필요성

정부재고 건조마늘이 국내 수요  
량의 2~3년 분에 해당되어 민간 저  
장량도 햇마늘 출하 전까지 소비하  
기에는 많은 물량이므로 93년산 난  
지형 마늘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5~10% 줄여 심도록 한다.』

밑줄 친 말들을 다음과 같이 다듬  
어 보았다.

◆ 적정면적 → 알맞은 면적

◆ 재배의 필요성 → 재배할 필요  
성 → 심을 필요성 → 심어야

이래서 ‘93년산 마늘 적정면적 재  
배의 필요성’이란 제목 전체를 ‘다음  
해 마늘 알맞은 면적에 심어야’로 쓰  
면 좋겠다.

◆ 정부재고 건조마늘이 → 정부  
가 갈무리한 마른 마늘이

◆ 국내 수요량의 2~3년분에 해  
당되어 → 국내에 필요한 2~3년치  
에 당해(2~3년치가 되어)

◆ 햇마늘 출하 전까지 → 햇마늘  
이 나올 때까지

◆ 물랑 → 양

◆ 난지형 마늘 → 따뜻한 지방에  
심는 마늘

‘난지형’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뒤에 가서 ‘한지형’이란 말이 나와 비로소 그 뜻을 알았다. 일본책에 나온 글을 옮겨 쓰니까 이렇게 된다.

◆ 재배면적 → 심는 면적

‘93년산 난지형 마늘 재배면적을’은 ‘다음해 따뜻한 지방에 심는 마늘 면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 『마늘은 이렇게 가꾸자

씨 마늘은 한 쪽의 ‘무게가 5~8g 되는 큰 마늘쪽’을 심는다. 마늘쪽 껍질에는 검은무늬병균, 선충등이 붙어 있으므로 반드시 소독 후 파종.』

◆ 등이 → 들이, 따위가.

◆ 소독 후 파종 → 소독한 다음에 심는다.

마늘은 파종, 곧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땅에 놓아 심는다. 무게가 5~8g되는 큰 마늘쪽이

라고 했는데, 마늘쪽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고 심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좀 큰 마늘쪽’이라고 하면 되지.

### 『마늘의 적기 파종

한지형 마늘은 10월 중~하순으로 얇게 심으면 통터짐이 발생하나 4~5cm 정도 깊게 심는다.

퇴비·닭똥은 반드시 잘 썩은 것을 주어 고자리파리 피해를 줄이고 질소질 거름은 너무 많이 주면 별마늘 발생이 많아므로 유의.』

◆ 마늘의 적기 파종 → 제철에 심기

‘적기’는 ‘제때’ ‘제철’ ‘알맞은 때’로 써야 한다. 여기서도 ‘파종’이란 말이 나왔다.

◆ 한지형 마늘 → 추운 지방에 심는 마늘

◆ 중~하순으로 → 중~하순에 심는다

말이 잘 이어지지 않기에 이렇게 써서 글월을 맺었다.



◆ 통터짐이 발생하니 → 통이 터지니

◆ 벌마늘 발생이 많아지므로 → 벌마늘이 많이 생겨나니

◆ 유의 → 조심할 것, 조심해야 한다.

### 『비닐 피복으로 수량 및 상품성 증대

비닐 피복 재배시 한지형 18% 난지형 40% 증수 가능

피복 시기 = 땅이 얼기 전이나 봄철 땅이 녹을 때

걷는 시기 = 4월중 ~하순경 반드시 제거 또는 흙으로 복토 실시』

◆ 피복으로 → 덮개로, 덮기로.  
‘피복’이라니, 왜 이런 말을 쓸까.

◆ 수량 및 상품성 증대 → 수량과 상품성 많게 하기

그런데, 이렇게 고쳐 놓아도 말이 어설피고 안 맞다. 수량을 많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상품성을 많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수량을 많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상품성을

많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상품의 수라면 앞에 나오니 거듭 말할 필요가 없고, 질(바탕)이라면 ‘증대’한다는 말이 안 맞다.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기’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유식해 보이는 말을 자꾸 쓰니까 엉뚱한 말이 된다.

◆ 비닐 피복 재배 시 → 비닐 덮개고 가꿀 때, 비닐을 덮어서 가꾸면.

◆ 한지형 → 추운 지방 마늘

◆ 난지형 → 따뜻한 지방 마늘

◆ 증수 가능 → 증수할 수 있다.  
더 거둘 수 있다.

◆ 피복 시기 → 덮는 때

◆ 걷는 시기 → 걷는 때

◆ 하순경 → 하순경, 하순 무렵, 하순께.

◆ 제거 → 걷고

◆ 흙으로 복토 실시 → 흙으로 덮을 것.

‘반드시 제거 또는 흙으로 복토 실시’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이 맞는

가?

‘반드시 비닐을 걷어버리거나 흙으로 (비닐을 걷지 않고 그 위에다 덮어버릴 것’이란 말이니 이래서 되는가? 아무래도 잘못 쓴 것 같다. ‘또는’이 아니고 ‘제거한(걷어낸) 다음’ 이렇게 써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역시 같은 신문 10월 26일자에 나온 ‘농사정보’란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제목은 ‘좋은 쌀 만들기’다.

### 『벼농사 — 품질 좋은 쌀 만들기』

콤바인·바인더·예취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둘러 벼 베기 실시.

현장 탈곡 후 건조기의 적온 (식용 60℃·종자용 45℃ 이하) 벼 말리기 또는 망사 이용 벼 말리기.

탈곡 직후 벼짚을 3~4등분 절단.

10g당 4백~5백kg 사용 후 깊이 같이 실시. 벼짚 직복데기를 불태우지 말고 눈에 되돌려 주기.』

◆ 콤바인·바인더·예취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 복식수확기·베

묶음차·풀깎기 등을 될 수 있는 데로 많이 써서 ‘콤바인’ ‘바인더’ 같은 농기구도 우리말로 지어 불러야 하겠지만, 풀깎는 기계를 우리말로 하지 못하고 일본말 따라 ‘예취기’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노릇이다.

◆ 벼베기 실시 → 벼를 벤다. 벼를 벨 것.

◆ 현장 탈곡 후 → 논에서 타작한 다음

◆ 건조기의 적온 ... → 건조기(적당한 온도는 식용 섭씨 60도, 종자용 섭씨 45도 이하로)

◆ 망사 이용 → 망사로

◆ 탈곡 직후 → 타작 바로 뒤

◆ 절단 → 잘라

◆ 10a → 3백평

우리는 넓이 단위를 평으로 쓰지 아르(a)로 쓰지 않는다.

◆ 시용 후 → 깎 다음

‘시용’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 깊이같이 실시 → 깊이같이를 한다. 깊이같이 할 것.

### 『~~밭농사~~—보리 및 사료작물 파종』

만한기 (10월 25일) 이내 파종 완료. 보리종자 소독으로 감부기병 예방. 논보리 및 사료작물 파종 후 물 빨 도랑 정비.』

◆ 보리 및 사료작물 파종 → 보리와 사료곡식 씨앗 뿌리기

◆ 만한기

이게 무슨 말인가? 평생 책만 들여다보면서 살아온 나 같은 사람도 처음 보는 말이지만 사전에는 있는가 싶어 찾아보니 역시 없다. 지식인들밖에 모르는 말을 농사꾼들이 읽으라고 쓰는 것도 잘못이지만, 글만 읽는 사람도 알 수 없는 말을 이런 농사 이야기를 하는 글에다 써서야 되겠는가. ‘만한기’를 굳이 한문 글자로 맞추면 ‘늦추위 때’가 된다. 그런데 묶음표 안에는 ‘10월 25일’로 밝혀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10월 25일이면 가을이 한창인 때다.

◆ 이내 파종 완료 → 전에 씨앗을 다 뿌린다. 전에 씨뿌리기를 마친다.

◆ 보리종자 → 보리씨

◆ 논보리 및 사료작물 파종 후 →

논보리와 사료곡식 씨를 뿌린 다음

◆ 정비 → 손질할 것. 손질을 한다.

농촌에서 농사일을 지도하는 사람은 농사꾼의 말을 알아야 한다. 만약 농민들이 잘못된 유식한 말이나 오염된 남의 나라 말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따라서 쓰지 말고 깨끗한 우리말을 써 보이고 들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농사일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느 농민이 쓴 글

농민이 쓴 글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나이가 많은 농민의 글은 보기 힘들다. 다음 글은 두어 달 전 ㄷ일보 독자란에 실렸던 것인데, 이제 농민의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자료이기에 글 전체를 실어 본다.

『農政건의 ‘독자 편지’冊子 발간 반갑다.』(전남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이강호)

나이 80이 다 된 내가 하루 종일 논에서 피를 뽑고 해가 저물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두툼한 봉투가 우송되어 있었다. <농어민의 소리에 귀를>이란 제목의 책자로서 농정을 건의한 신문 독자들의 투고에 대한 답변이 담긴 책이었다.

요즘 농촌의 상황이 하도 기가 막혀 지난달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란에 투고했었는데 그 답변 책자를 받고 보니 정부에서도 농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확인돼 기뻐다. 그러나 과연 농민의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의심스럽지만 나의 주장을 여기서 한 마디 덧붙이고 싶다.

농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새 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기계화영농단이 합심해서 한 부락의 영농지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작 뿐 아니라 축산, 화훼, 약초, 기타 특용작물 등 모든 영농을 생산에서 소비, 판매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또 위탁영

농회사를 1개면에 2개소 이상은 설치해야 한다. 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최근 강원도의회 예결위는 행정실적 우수시군 시상비, 교수해외연수비, 소방장비 보강비 등을 노인복지와 농어촌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전용키로 의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본받아 농촌을 살리는 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정관청에서 쓰는 말들이 워낙 중국글자말로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글은 대체로 입으로 하는 말의 질서를 따라서 썼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글에만 쓰는 말, 농민들이 이런 말을 쓰는가 하고 의심이 되는 지식인들의 글말이 여러 군데 나온다. 더 쉬운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말을 중국글자말로 써버린 것은 더욱 많다. 이 분은 나이 78세가 되어 있지만, 아마도 신문이나 그 밖의 책들을 많이 읽는 분 같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쓰는 말이 지식인

의 글말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본다.

차례로 문제가 되는 말을 들기로 한다. 먼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말이 몇 가지 있다. 남의 나라 말법을 따라서 쓴 말과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도 공연히 어려운 중국글자 말을 쓴 경우다.

◆ 투고했었는데 → 투고했는데

이런 잘못된 말을 시골의 농사꾼 노인들까지 쓰게 되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미작 → 벼농사.

◆화훼 → 화초

◆일조가 되었으면 → 도움이 되었으면.

이것은 도무지 농사꾼의 말일 수 없다. 물론 농사꾼이 아니라도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로 썼으면 좋겠다 싶은 말을 들어본다.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까닭은 이런 말이 꽤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잘못되어 가는 사실을 웬만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들

도 반드시 바로잡아 쓰는 것이 옳다.

◆ 상황 → 형편

◆ 1개면에 2개소 → 한 면에 두 곳

◆ 기타 특용작물 → 그 밖에 특별 농사 따위

여기서는 ‘기타’ ‘특용작물’ ‘등’이 세 가지 말이 다 문제가 된다. 이 가운데서 ‘등’이란 말은 다시 두 군데 더 나온다.

◆ 소방장비 보강비 등을 → 소방장비 보강비 따위를. 소방장비 보강비들.

◆ 농어촌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 농어촌 활성화 사업비 따위로. 농어촌 활성화 사업비 들로.

◆ 구성해야 → 짜야

다음과 같은 말들도 더 쉬운 말로 깨끗한 우리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

◆ 책자 → 책

그냥 책이라고 하면 되지 ‘책자’라고 할 필요가 없다.

◆ 과연 → 정말

◆ 시급히 → 빨리, 하루빨리.

◆ 계획적으로 → 계획해서, 잘 계획해서

◆ 적극적인 지원이 → 적극 지원이

이 ‘계획적’, ‘적극적’할 때 쓰는 무슨 ‘-적’이란 말은 일본말 따라서 쓰는 말이니 안 쓰는 것이 좋다. 아무리 널리 쓰고 있고, 입말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말이라면 고쳐 나가야 한다.

◆ 전용키로 → 돌려쓰기로

이밖에 ‘합심해서’, ‘설치해야’와 같은 말도 ‘한 마음이 되어’, ‘두어야’와 같이 좀 더 쉬운 말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같이 쉽고 깨끗한 우리말을 찾아 쓸 때 비로소 농민들은 자신의 말을 찾아가질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세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농민의 삶, 농민의 말

다음은 두어 해 전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농촌지역 가톨릭 신자들의 강습장에서, 내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두 쓰게

해서 받아 놓은 글 가운데 한편이다.

신자들은 모두 농사꾼들이었고, 이 농사꾼들 가운데는 중고등학교를 나온 분도 있었지만 학교 공부를 아주 하지 않은 듯한 분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글쓰기 강의에서 내가 한 말은, 글을 유식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 쉽게 읽히는 것이 가장 좋은 글이라는 말이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써낸 그 글들은 거의 모두 깨끗한 말로 써여 있었고, 농민들의 삶과 마음을 믿게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 앞으로 몇 편 더 소개하고 싶다.

『그 어느날 - 김인배

80년 3월 추운 어느 날 밤을 생각해 본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밤이다. 나는 친구 집에 가기 위해 집 모퉁이를 돌아 짚동가리 있는 곳을 지날 때, 짚동가리 안

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누구야!”하고 소리질렀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 가까이 가 라이트 불로 확인을 하며 깜짝 놀랐다.

사람이 웅크리고 누워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다. 무엇 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 분은, 얻어먹는 사람인데 바람이 안 들어오고 자리가 좋아 잠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나는 통명한 어조로 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며 돌아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따라오시오” 하자 그분은 나를 따랐다.

마루 끝에 앉히고 불을 켰다. 몸은 옷으로 휘감아 손과 발이 보이질 않았다. 얼굴은 수염이 기어 눈만 빠꼼하게 보였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릴려고 내 손이 발로 가는 순간, 이상하고 야릇한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생전에 처음 맡은 냄새였다. 신발은 떨어진 농구화를 신었고, 양말을 다섯 켤레 정도 신었던 걸로 생각된다. 옷도 마찬가지로.

내 방으로 안내했다. 어머니는 바깥사랑채로 모시라고 하였으니 그 방은 오래 묵은 방이어서 모실 수가 없다고 하며 끝내 내 방을 고집했다.

반찬은 없는 상이었으니 그분은 한사발을 거뜬히 치우고 더 먹었다. 아랫목에 요와 이불을 깔아드리고 나는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밤 12시쯤 돌아와 자려고 하였으니 냄새 때문에 잘 수가 없었다. 나는 냄새가 안 들어오게 이불을 꼭 뒤집어쓰고 잠을 청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그분은 떠나갔다. (그 후 일주일만은 방을 쓰지 못했다.)

3일 후 이웃집 어르신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자네 집에서 잤던 거지 노인네, 옆 마을길에서 죽어 산에다 묻었다고 그러는데, 소문 못 들었나?” 한다. 순간 내 마음은 덜컥 나도 모르게 이상야릇한 감정에 쌓였다.

며칠 수 소여물을 썰기 위해 짚동가리에 갔을 때 오목하게 패인 곳에 주먹만한 물건이 보였다. 겉은 비니

루, 다음은 새마을 담배 갑 안에 소중하게 싸여 있는 것은 동전 250원이었다.

그 할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다.

그 후 나는 이때 있었던 일을 자주 생각한다. 내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노인 발을 씻어준 거와 내 방과 밥, 이부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제공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다.』

이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계속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신앙에 관한 말이 적혀 있다. 여기 옮긴 글은 전체에서 3분의 2쯤 되는 분량이다.

우선 이 글을 본디 쓴 원고에서 어느 정도로 틀리지 않게 옮겼는가 하는 문제부터 밝히겠다.

말을 고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다만 ‘똥명한’을 ‘통명한’으로 했는데, 이것은 글을 쓴 사람이 잘못 썼을 것이라고 보고 바로잡은 것이다.

‘짚동가리’를 ‘집동가리’라고 쓰고, ‘아랫목’을 ‘아르목’이라고 쓴 것

말고는 맞춤법도 틀린 것이 별로 없었다. 띄어쓰기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었다. 그러니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몇 군데 바로잡은 것밖에 손을 댄 데가 또 있다면, 글 가운데 바로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써 둔 데다 겹따옴표 “ ”를 한 것뿐이다. 이런 곳에 세 군데 있었다.

줄을 바꿔 쓴 것도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옮겼다.

이것으로 보면 이 글을 쓴 분이 중등교육을 받았거나 그 정도의 공부한 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도 ‘있었다’와 같은 서양말법을 쓰지 않았고, 잘못된 일본말법도 없어서 깨끗한 우리말로 되어 있다. 일하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말이 이만하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글에서도 몇 군데 욕심을 부리고 싶은 데가 있기에 적어 본다.

무엇보다도 ‘통명한 어조’라고 한 말이다. ‘통명한’은 ‘통명스러운’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어조’란 말,



이게 안 된다. 유식한 글말이다. ‘말투’라고 해야 되고, 이게 우리말이지. 농민들도 신문이나 책을 읽으니 이런 글말을 저도 모르게 따라 쓰게 된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로 이런 글말의 해독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에 나오는 ‘제공했다는’이란 말도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딱한 말이다. ‘내주었다는’이라 하면 얼마나 좋은가.

다음은 한 글월을 들어보자.

『나는 부엌에 들어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릴려고 내 손이 발로 가는 순간, 이상하고 야릇한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여기서 ‘자극했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찔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우리말인가.

‘내 손이 발로 가는 순간’이라 썼는데, 이것이 뭐 별난 말재주는 아니

지만, 내가 쓴다면 ‘가까이 가자’라고 쓰겠다.

‘순간’이란 말이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써서는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한다. 순간 내 마음은 덜컹...’이 자리에 쓴 ‘순간’은 아주 없애도 된다.

‘발을 닦아 드릴려고’는 ‘발을 씻어 드리려고’라 쓸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상하고 야릇한’ 이렇게 쓴 말도 잘 쓴 것이 아니다. ‘이상하다’와 ‘야릇하다’는 같은 말이니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좋다. ‘야릇한’이면 그만이지. 두 말을 아주 하나로 해서 ‘이상야릇한’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는 쓸 수 있다.

‘며칠 후’, ‘그 후’ 이런 말들은 모두 ‘며칠 뒤’, ‘그 뒤’라 했으면 좋겠다.

‘짚동가리’ 이것은 ‘짚가리’란 말 이겠는데, 그 지방에서 쓰는 말인 것 같아 그대로 두었다.

냄새 나는 거지의 발을 씻어주고 재워주는 농사꾼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일인가? 소설보다 더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삶 속에는 얼마든지 묻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유식한 말로 재주를 부리는 글쟁이들보다는 우리 말밖에 모르는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더 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2017. 9. 5 시들어가는 꽃 (장은결 11살)

## 문법을 지키지 않는 겹말들

미승우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란 책을 옮김.  
국문학자이시며 학술 연구위원으로 교과서 연구를 하셨다.

우리의 글이나 말에는 같은 뜻의 말인데도 글자가 다르다거나 발음이 다른 까닭에 전혀 다른 말로 인식되어 겹쳐서 쓰이는 것들이 많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곧잘 쓰는 ‘역전 앞’이나 ‘축구를 찬다’ 또는 ‘무시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비웃거나 흠을 보면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무식쟁이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지식인들은 이와 똑같은 구조의 ‘겹말’들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마구 쓰고 있다.

1985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에서 어느 평론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한국적

특징은 일본식도 중국식도 아닌, 그 중간노선에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驛前(역전) 앞이라는 말이다. 驛前이라는 한자말에는 이미 앞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도 거기에 다시 순수한 우리말을 덧붙여 쓴다. 草家(초가)집도 그렇고 洋屋(양옥)집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겹말의 사용을 외세 문화 속의 한국 문화, 다시 말해 그의 표현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 문화’라고 했다. 그러니까 ‘역전 앞’도 좋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면서 그는 ‘깡통’과 ‘모찌떡’도 그런 유형의 낱말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6월 30일자 기사에

서는 “라인 선 줄 너머로 나가시오”라는 아나운서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겹쳐 쓰는 표본, 건본, 샘플이네”라고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소개됐다.

이 평론가의 글을 보면 ‘역전 앞’처럼 문법을 지키지 않는 겹말에 어떤 타당성을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서도 ‘라인, 선, 줄’이나 ‘표본, 건본, 샘플’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제 때에는 별로 쓰이지 않았던 겹말들이 해방된 뒤로 부쩍 늘어났는데도 그런 겹말들을 오랜 옛날부터 써 왔던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은 옛날의 지식인들이 비웃었던 ‘역전 앞’이나 ‘무시보다’ 또는 ‘축구를 차다’에 대해서는 역시 창피를 느끼고 잘 쓰지 않는다. 이 말을 거리낌 없이 쓰는 사람은 역시 무식충이다.

‘초가집’은 ‘초집’이라는 훌륭한 말을 누르고 전국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초집’보다 더 좋을 리는 없다.

‘초가’면 될 것을 ‘초가집’이라고 하게 된 까닭을 그 평론가는 “한자말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서도 자기 나라의 말을 함께 쓰려고 한 무의식 때문”이라고 미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어거지다.

울릉도나 강원도의 산간에서 볼 수 있는 ‘너와’ 또는 ‘너새’라는 우리 말에는 집을 뜻하는 한자말이 없는 데도 공연히 ‘집’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오두막’의 ‘막’은 한자의 幕이지만 이것도 집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오두막’에 거추장스럽게 ‘오두막집’이라고 꼬리를 다는 사람들이 있다.

서양말과 우리말의 합성어라는 ‘깡통’도 최근에 생긴 말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가 자랄 때에 썼던 말은 ‘깡통’이 아니라 ‘양철통’이 아니면 ‘블리키통’이었다(함복 경성). 그 ‘블리키’라 하는 놀이도 ‘블리키차기’를 비롯하여 몇 가지가 있었다. ‘블리키’ 자체가 영어이지만 ‘깡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말을 소개하는 것

이다.

일본말과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모찌떡’도 ‘모찌’나 ‘앙꼬모찌’를 쓰기는 했어도 ‘모찌떡’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모찌’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썼던 까닭에 퍼졌으리라.

최근에 자주 듣게 되는 외국어인 ‘팬더’나 ‘코알라’를 보자. 텔레비전에는 어느 것에도 말끝에 ‘곰’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팬더곰’이니 ‘코알라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이 말 끝이 ‘곰’도 외국 말을 무턱대고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붙인 말일까? ‘팬더’는 곰이 아니라 ‘오소리’의 일종이고 ‘코알라’ 역시 곰이 아니라 캥거루의 사촌인 유대류(有袋類)이니 모르는 데서 만든 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뜻보다 소리를 고르기 위해 아무 말이나 마구 겹쳐서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현상은 접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접두사에도 있고, 외자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로 된 것에도 있어서 말의 문법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수를 씻는다’고 하면 모두 웃겠지

방송에서 자주 듣고, 또 신문이나 잡지, 소설에서 너무 자주 볼 수 있는 말에 ‘기간 동안’과 ‘피해를 입다’가 있다. 이 말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부쩍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말들이 문법을 지키지 않는 겹말을 키운 주범인 것 같기도 하다. ‘기간’과 ‘동안’은 같은 뜻의 겹침이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한자말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우리말이라는 것뿐이다. ‘피해를 입는다’도 한자말과 우리말의 겹침인데, 입은 것 위에 또 입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피해를 입다’와 같은 구조의 다른 말을 가지고 이 말들의 모순성을 살펴보자.

被害(피해)를 입다

↓

입다

↓

被(피)

防火(방화)를 막다

↓

↓

막다          방(방)

‘불을 막는 것을 막다’라고 하면 곧 불을 지른다는 뜻이 된다. 막는 것을 막으면 곧 막는 행동을 못 하게 한다는 소리다. 말리는 것을 말리면 싸움을 붙인다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해를 입었는지, 그 원인이 되는 것의 말을 따면 문법적으로 흠이 없는 말을 만들 수 있다. 풍해(風害)나 재해(災害) · 동해(凍害) · 손해(損害)를 입었다고 하면 원인을 더 빨리,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이 된다.

洗手(세수)를 씻는다

↓

↓

씻다         洗(세)

이 말의 구조도 분명히 ‘피해(被害)를 입었다’와 같다. 그런데도 ‘세수를 씻는다’고 하면 느낌이 생소할 뿐 아니라 말이 되지 않아서 모두 웃을 것이다.

1985년 6월 25일의 KBS 씨름에서는 전주 KBS 간부에게 감사패를

주었는데, 그 문장이 걸작이었다. 여러분도 이 문장을 읽고 나면 비문법적 겹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씨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 문장의 ‘지대(至大)하다’를 ‘크게’로 바꾸면 ‘크게 기여한 공이 크므로’가 된다. 여기서는 ‘지대’라는 한자말의 뜻을 모르는 데서 이렇게 유치한 문장이 생겼다.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문법적 겹말이 자주 늘어난다는 것은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쓸 때에 그 말이나 글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외국어에 붙는 우리말도 사정은 같다.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가 아니라 ‘히트했습니다’면 된다. 때린 것을 다시 때리면 어떻게 될까? 우주선의 원리에서처럼 허공을 힘차게 날 것이다. 이것은 히트가 아니라 홈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말이 된다. 축하 ‘케이크 과자’가 우습다면 ‘히트치다’도 우습지 않겠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말이나 다른 외국어에 붙여 문법을 지키지 않는 겹말을 만드는 경우를 보면 한자나 영어를 잘 모르는 것이다.

문법 없는 겹말은 ‘매일매일’이나 ‘높이높이’처럼 한 번 쓴 것보다 두 번 겹쳐 쓴 쪽이 그 상태가 더 어둡함을 나타낼 수 있다. ‘매일매일’은 오늘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또 그제께도 그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높이’는 한 번 쓴 것보다 두 번 쓴 편이 더 높이 느껴진다. 이런 겹말은 따로 ‘첩어’라고 한다.

이렇듯, 겹말에는 문법으로 결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써야 한다. 그리고 문법 없는 겹말의 대부분이 서로 소리가 다른 한자말(외국말)과 우리말로 짝지어 있는 것들이므로 어느 한쪽을 쓰지 않으면 모두 문법을 지킨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쓰임에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 요즘에는 또 한자말과 한자말로 된 문법 없는 겹말까지 생기고 있다.

여기에 소개한 비문법적 겹말은

모두 신문·방송·잡지·교과서 같은 데서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가나다순으로 설명한 것들이므로 우리의 언어 질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자기의 그릇된 말버릇을 고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까운 측근** : ‘측근’이 ‘결의 가까운 곳’을 뜻하는 말이므로 그대로 ‘측근자’ 또는 ‘가까운 사람’ 중의 하나만을 써야 한다.

**가까이 접근시키다** : 가까이 붙이는 것을 ‘접근’이라고 하므로 ‘가까이 붙이다’ 또는 그대로 ‘접근시키다’만을 써야 한다.

**가르치는 교훈** : ‘교훈’이 ‘가르치고 이끌어 줌’이므로 ‘가르친다’는 말은 빼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다** : 간단하게 하는 것이 곧 ‘요약’이다. ‘간단하게 하다’ 또는 그대로 ‘요약만을 쓰도록 한다’.

**간략히 개관하다** : 이것은 ‘개관’의 뜻을 잘 모르고 쓴 말이다. ‘개관’은 대충 살펴보는 것을 말하므로 그

말 자체에 ‘대충’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간략히’는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다.

**감각을 느끼다 · OO감을 느끼다 :**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비문법적 말이다. 감각 신경이 받는 어떤 자극이 곧 ‘느낌’이다. 그러므로 ‘감각을 느낀다’나 ‘OO감을 느낀다’는 ‘느낌을 느낀다’가 된다. 다른 말이 얼마든지 있다. ‘쾌감을 느낀다’의 경우라면 쾌감에도 여러 성질의 것이 있으므로 ‘상쾌함을 느낀다’라든가 ‘유쾌함을 느낀다’ 또는 ‘통쾌함을 느낀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만족감을 느낀다’가 아니라 ‘만족을 느낀다’ 또는 ‘만족함을 느낀다’이다. ‘만족스럽다’라는 표현도 좋다.

**감명을 느낀다 :** ‘감명을 받았다’ 또는 ‘감명했다’로 족하다. ‘감명을 느낄 수 있도록’인 경우라면 ‘감명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감명 받도록’과 같은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다.

**같은 동포 :** 혈통이 다른 동포는 있을 수 없다. ‘같은 민족’은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은 그대로 ‘동포’ 또는

‘같은 핏줄’ 등으로 써야 한다.

**같이 동행하다 :** ‘함께(동) 가는(행) 것’을 ‘동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대로 ‘함께 가다’ 또는 ‘동행하다’만으로 족하다.

**거센 격랑 :** ‘격랑(激浪)’이 곧 ‘거센 파도’이다. ‘격(激)’이 ‘거세다 · 거칠다’의 뜻이다.

**걸쳐 간 경로 :** ‘경로(經路)’가 ‘걸쳐 간 길’이므로 이 경우에는 ‘걸쳐 간 길’ 또는 그대로 ‘경로’만 쓰면 된다.

**견지에서 본다면 :** 많이 쓰이고 있는 문법 없는 겹말이다. ‘나의 견지로는’ 또는 ‘내가 보건대’ 같은 말로 바꾸도록 한다.

**결론을 맺는다 :** ‘결론짓다’ 또는 ‘이야기를 마무리짓다’, ‘결론을 내리다’면 된다.

**결실을 맺는다 :** ‘열매를 맺는다’이다. 그대로 ‘결실되었다’ 들로 쓰면 그만이다. 結(결)이 ‘맺다’의 뜻을 가진 자이므로 이 글자가 붙는 말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결연을 맺는다 :** ‘인연을 맺다’ 또



는 ‘결연했다’면 된다. 많이 쓰이고 있는 문법 없는 겹말이다.

**계속 이어지다** : ‘계속(繼續)’의 뜻이 ‘끊이지 않고 잇대어 나아감’이다. 끊겼던 일을 다시 이어서 해 나가는 것도 ‘계속’이라고 한다. 따라서 ‘계속 이어지다’는 그대로 ‘계속되다’ 또는 ‘이어지다’만을 써야 한다.

**고귀한 귀품** : ‘고귀(高貴)하다’는 값이 비싸다거나 지위가 높고 귀한 것을 일컬을 때에 쓰는 말이고, ‘귀품(貴品)’은 귀중품, 다시 말해 귀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은 그대로 ‘고귀품’이면 족하다. ‘값이 비싸고 귀한 물건’도 문법 없는 말이 된다.

**공감을 느낀다** : 그대로 ‘공감하다’이다.

**관점에서 본다면** : 이미 말한 ‘견지에서 본다면’과 같은 성질의 말이다. ‘관(觀)’이 ‘보다’의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이 아니라 ‘이런 관점이라면’, ‘이런 관점에서는’이라는 식으로 써야만 자연스러운 말이

된다.

**과거의 역사적 과오** : 그대로 ‘역사의 과오’이다.

**구별하여 나누다** : ‘구별’은 종류에 따라 갈라 놓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나누다’는 둘이나 그 이상으로 가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어느 말에나 ‘가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대로 ‘구별하다’ 또는 ‘나누다’만을 써야 한다. ‘구별하여 가르다’도 좋은 말이 아니다. 구별하다 · 분류하다 · 선별하다 따위도 역시 쓰임에 주의해야 하는 말들이다.

**구전으로 전해지다** : ‘구전(口傳)’이 ‘입으로 전함’이다. 따라서 이 말은 그대로 ‘구전되다’ 또는 ‘이야기로 전해지다’를 쓰면 된다.

**근 00 가까운** : ‘근 반 세기 가까운’ 또는, ‘근 일 년 가까운’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근(近)’ 자체가 ‘가깝다’의 뜻이므로 뒤에 오는 ‘가까운’은 필요하지 않다. ‘근 반 세기에 걸쳐서’ 또는 ‘반세기 가까운’이면 된다. ‘일 년 가까운’ 또는

‘근 일 년 동안’이면 그만이다.

**근래에 와서** : 작문 교과서의 저자들도 멋모르고 썼던 문법 없는 겹말이다. ‘근래(近來)’의 뜻은 ‘요즘’이다. 이 말은 ‘최근에 와서’를 잘못 쓴 것이므로 그대로 ‘근래에’를 쓰거나 ‘최근에 와서’를 쓰면 된다.

**기간 동안** :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의 하나이다. ‘기간(期間)’자체가 ‘동안’이다. 따라서 ‘기간 동안’은 ‘동안 동안’이 된다. 그대로 ‘이 기간’이나 ‘이 동안’을 써야 한다. 1910년대의 사람들은 ‘석 점 동안’ 또는 ‘세 시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지금은 ‘세 시 동안’으로 굳어져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기간 중** : ‘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이다. ‘이 기간에’ 또는 ‘이 동안에’면 된다.

**기다리며 대기하다** : ‘대기(待期)’가 ‘기회를 기다리다’이다. 따라서 그대로 ‘대기하다’ 또는 ‘기다리다’만을 써야 한다.

**깊은 심도** : ‘심도(深度)’는 ‘깊은 정도’이다. 따라서 앞에 ‘깊은’이 겹

치면 안 된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 : ‘나라를 지키는 정신’ 또는 그대로 ‘호국 정신’이다.

**낙엽이 떨어지다** : 떨어지는 나뭇잎을 ‘낙엽’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로는 ‘갈잎’이라고도 한다. 그대로 ‘잎이 지다’ 또는 ‘잎이 떨어지다’를 써야 한다. 떨어진 잎이 다시 떨어질 수는 없으므로, ‘낙엽이 떨어지다’는 틀린 말이다.

**남는 여분** : ‘여분(餘分)’의 뜻이 ‘나머지’이므로 그대로 ‘나머지’ 또는 ‘여분’을 써야 한다.

**남은 여생** : ‘여생(餘生)’의 뜻이 ‘나머지 생애’이므로 이것도 그대로 ‘여생’ 또는 ‘남은 인생’을 써야 한다.

**내재해 있다** : ‘내재(內在)’의 ‘재’는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그대로 ‘내재한다’를 쓰면 된다. ‘재’가 붙는 ‘실재(實在)하고 있다’ 또는 ‘존재(存在)하고 있다’도 그대로 ‘산재하다’를 쓴다. 이 말들은 듣거나 말할 때는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석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넓은 광장** : ‘넓은 터’ 또는 ‘넓은 마당’을 ‘광장(廣場)’이라고 한다. 이 말은 광장의 규모를 말할 때에 곧잘 쓰이는 것이므로 그 규모가 ‘크다’ 또는 ‘작다’ 등의 말을 넣어서 써야 한다. ‘큰 광장’ 또는 ‘작은 광장’이 문법적인 말이다.

**넘어오는 과도기** : ‘과도기(過渡期)’는 어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넘어오는 과도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그대로 ‘넘어오는 기간’ 또는 ‘과도기’만으로 표현해야 한다.

**네 갈래로 갈라진 사거리** : 이 말에는 접말이 두 개나 있다. ‘네 갈래로 갈라진’은 그대로 ‘네 갈래’면 된다. ‘사거리’라는 것은 ‘네 갈래 길’을 뜻하는 한자말이다. ‘세 갈래 길’이면 ‘삼거리’이다. 따라서 ‘네 갈래 길’ 또는 ‘사거리’만을 쓰면 된다.

**녹인 용액** : 중학교의 과학 교과서나 고등학교의 화학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말이다. ‘용액(溶液)’은 ‘녹은 액체’이므로 ‘녹인 용액’은 틀

린다.

**높은 고산** : ‘높은 산’ 또는 그대로 ‘고산’을 써야 한다.

**높은 고열** : ‘높은 열’ 또는 그대로 ‘고열’을 써야 한다.

**높은 고온** : ‘높은 온도’ 또는 ‘고온’을 쓴다.

**높은 고지** : 이것도 ‘높은 곳’ 또는 ‘고지’만을 써야 한다. 어느 정도의 고지인가를 밝히려면 ‘미터’로 추정할 말을 덧붙인다거나 ‘상당한’과 같은 말을 써서 나타내면 된다.

**뇌리 속에** : ‘뇌리(腦裡)’의 ‘裡’가 ‘속’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대로 ‘뇌 속’이나 ‘머릿속’ 또는 ‘뇌리’만을 쓰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세계** : 어느 소설가가 글을 멋지게 써보려고 한 것이 이렇게 우스운 문장을 만들고 말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면 그만이다. 유식한 티를 내기 위해 한자말을 꼭 써야 한다면 ‘불가시의 세계’만 쓰면 된다. ‘불가시(不可視)’는 ‘볼 수 없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불가시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다.

**늘 상비하다** : ‘상비(常備)’는 ‘늘 준비하여 둠’이다. 따라서 ‘늘 상비하다’는 틀린다.

**느낀 감동** : ‘감동’ 또는 ‘느낌’의 어느 하나를 쓰면 된다. ‘느껴 움직이다’가 곧 ‘감동’이다.

**다시 재론하다** : ‘다시 논하다’ 또는 그대로 ‘재론하다’를 써야 한다. ‘재론(再論)’이 ‘다시 논하다’의 한자 말이다.

**다시 재발하다** : 병이 ‘다시 생기다(발생하다)’ 또는 그대로 ‘재발하다’이다.

**다시 재출발하다** : ‘다시 출발하다’ 또는 그대로 ‘재출발하다’이다. 재(再)가 붙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대한 대비책** : ‘대비(對備)’ 자체가 ‘어떤 문제에 대응할 준비’를 줄인 말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준비’도 된다. 여기에 다시 ‘대(對)한’이라는 말을 쓰면 ‘대한 대비책’은 ‘대한 대한 책’이 되므로 틀린 말이 된다. 따라서 ‘관한 대비책’이 ‘대한 대비책’보다 좋겠으나 그대로 ‘일동 대비

책’이나 ‘수해 대비책’이면 그만이다.

**더러운 누명 · 더러운 오명** : ‘누명(陋名)’이나 ‘오명(汚名)’ 자체가 ‘더러운 이름’이다. ‘지저분한 평판에 오르내리는 이름’ 또는 ‘억울하게 뒤집어 쓴 불명예’가 곧 ‘누명’ 또는 ‘오명’이다. 그러므로 이 말들은 그대로 ‘누명을 쓰다’ 또는 ‘오명을 쓰다’를 쓰면 되고 ‘더러운’은 넣지 않아도 된다.

**더러운 오물** : ‘깨끗한 오물’이 있을 수 없다면 그 반대말인 ‘더러운 오물’도 있을 수 없다. ‘깨끗한 오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말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러운 오물’에도 모순이 있다. ‘더러운 오물’을 풀어 쓰면 ‘더러운 더러운 물건’이 되므로 모순점이 어느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도금을 입히다** : ‘도금(鍍金)’은 쇠붙이에 금속 막을 입히는 것을 뜻한다. ‘도(鍍)’의 뜻을 모르는 데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 이 말은 그대로 ‘도금하다’이다.

**도열해 서다** : ‘도열(堵列)’의 뜻은 ‘죽 늘어섬’이다. ‘서다’의 뜻이 이미 들어갔으므로 다시 ‘서다’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따로 떨어진 별개의 사건** : 글자는 각각 다른 뜻을 가진 것들이지만 비슷한 성질의 말을 함께 쓰게 되면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말의 뜻이 같아지는 수가 있다. 여기서는 ‘따로 떨어지다’와 ‘별개’가 비슷한 말인데, ‘별개(別個)’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관련성이 있는 것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런 뜻에 ‘따로 떨어진’이라는 꾸밈말을 넣으면 말이 어색해진다. ‘별개의 사건’ 또는 ‘따로 떨어진 사건’, ‘다른 사건’으로 쓰면 된다.

**라인 선** : 이것은 영어와 우리말이 겹친 예이다. ‘라인(line)’의 뜻이 ‘선(線)’이므로 ‘라인 선’은 ‘선 선’이 된다.

**마지막 중점** : 중점은 하나뿐이다. 마지막 도착점·정거장이 곧 중점이다. 이 말에서는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고 그대로 ‘중점’이나 ‘중착역’, ‘중착점’ 따위를 쓰면 된다. ‘중간 중

점’이라는 말이 우습듯이 ‘마지막 중점’도 우스운 말이다.

**마지막 최종 결승** : ‘마지막 결승’이 곧 ‘최종 결승’이다.

**만족감을 느낀다** : ‘만족을 느낀다.’ 또는 ‘만족함을 느낀다’이다.

**매 ~마다** : 많이 쓰이고 있는 비문법적 겹말이다. ‘매(每)’가 바로 ‘마다’의 뜻이다. ‘매일’은 ‘날마다’이고 ‘매회(每回)’는 ‘회마다’의 뜻이므로 ‘매 날마다’나 ‘매 회마다’는 아주 듣기에 거북하다. ‘매 날마다’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매 일요일마다’나 ‘매 2년마다’라는 말을 곧잘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언어 훈련이 덜 된 데에 있다.

**먼저 선공하다** : 먼저 공격하는 것을 ‘선공(先攻)’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먼저 공격하다’ 또는 그대로 ‘선공하다’를 써야 한다.

**먼저 선취점을 얻었다** : 축구나 야구·농구 중계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먼저 한 점을 얻었다’ 또는 ‘먼저 점수를 땀다’를 쓰든지 그대로 ‘선취점을 땀다’ 또는 ‘먼저

독점했다' 같은 말을 써서 겹말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면학에 힘을 쓴다 :** '면학(勉學)' 자체가 '학문에 힘을 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대로 '면학한다' 또는 '꾸준히 공부한다'나 '공부에 힘을 쓴다'로 써야 한다.

**명백하게 밝히다 · 명확하게 밝히다 :** '명백(明白)' 자체가 '밝힌다'라는 뜻이므로 '명백하게 했다'든지 '뚜렷하게 밝혔다' 또는 그대로 '밝혔다'를 쓰면 된다. '분명히 했다'이지 '분명히 밝혔다'가 아니다. '확실히 밝혔다'이지 '명확하게 밝혔다'는 아니다.

**모든 만물 :**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물'이라고 하므로 이 말에서는 '모든'이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무서운 공포 :** '무서움과 두려움'을 '공포'라고 한다. '공포' 속에 '무서움'이 들어 있으므로 이런 말은 써서는 안 된다. 무섭지 않으면 공포가 아니다.

**무수히 많은 :** '셀 수 없이 많은

수효'를 '무수(無數)'라고 하므로 '무수히 많은'은 틀린다. 그대로 '무수하다'를 써야 한다.

**미리 예고 · 미리 예방 · 미리 예상 · 미리 예측 :** '예(豫)'가 들어가는 말에 '미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豫'는 '미리 예'이다. 미리 알리는 것이 '예고'이고 미리 막는 것이 '예방'이다. 미리 짐작해서 생각하는 것은 '예상'이나 '예측', 미리 내는 것은 '예납(豫納)',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예비'다.

**미술을 그린다 :** 국민 학교 때부터 잘못 쓰고 있는 말이다. '미술'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기예이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린다'를 써야 한다.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 '추진력(推進力)' 자체가 '밀고 나아가는 힘'이므로 어느 한쪽을 써야 한다.

<이오덕 선생님도 옛날부터 일본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말의 어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이승우 선생님이 찾아 정리해놓은 이 글도 참

느낄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엉터리가 된 일본 외래말은 고쳐야할 게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우리말 우리얼’ 지에 실었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 모두 일본말은 물론 모든 한자말들을 우리말로 바꿔 끝내 다 몰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2017. 9. 13 국화꽃 (장은결 11살)

##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

권순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토박이 땅이름》, 《박 추억 속의 그리움》, 《한글과 농촌 문화》 씀.

### 월산리(月山里)

달 같이 둥근 산 아래 있는 마을을 ‘달미’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마을이 없다. 행정구역 통폐합할 때 달미라는 마을 이름을 한자로 바꾸면서 월산(月山)이라 하고 달미 · 못골 · 너죽골을 월산1리, 재량 · 미역내를 월산2리라 하였다. ‘달미’라는 마을은 없어져도 한자로 표기해서 월산(月山)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 월산리1리 (못골 · 달미 · 너죽골)

#### < 못골 >

두 개의 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한 곳은 인작이고 또 한 곳은 천작인데 인작은 학성 이씨

네가 막았다고 하여. 못 밑에 학성이 씨들이 논을 새로 샀을 때는 수세를 안 냈다고 한다. 학성 이 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 ■ 동계

나무: 왕버들(떡버들) 한그루(보호수).

제일: 정월 대보름날(음 1. 15.)

제관: 동민 전체.

제물: 거두어서 장만.

#### ■ 토박이 땅이름

● 천작못 - 이 마을에 못이 두 군데 있는데 아래 있는 못은 자연히 생긴 못으로 천작 못이라 함. 큰 웅덩이를 못으로 막은 것인데 두 산줄



기가 밀려와서 못뚝이 되었다고 한다.

● 인작못 - 두 군데 못 중에 위에 있는 못으로 학성 이 씨들이 만들었다 하는데, 사람이 만들었다 하여 인작못이라 함. 다른 성씨들은 이 못 밑에 농토를 구입할 때 술이나 돈을 내지만 학성 이 씨들은 논을 구입해도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 앞산 - 마을 앞에 있는 산.

● 준지봉 - 옛날 군이 진주하여서 ‘진주봉’이라 한 것을 부르기 쉽게 준지로 불리게 된 것이다. ≍준재봉, 진주봉

● 두루봉 - 두루변한 산봉우리.

● 제공골 - 제사가 있는 골. 제공이란 묘제를 지내기 위해 지어놓은 집을 말한다.

● 절골 - 절이 있던 골짜기.

● 절골못 - 절이 있었던 골짜기의 못.

● 말기미 골짜기 - 말을 기르던 골짜기라 한다. 말기름이 말기미로 불리게 되었다. 이곳에서 말을 길러 준지봉(진주봉)에 주둔한 군사들이

그 말들로 왜적을 물리쳤다 한다.

● 점골 - 용기를 굽던 곳.

● 어분골 - 산을 업고 있는 듯한 산.

● 굴믹이 - 굴 밑 혹은 굴 앞. 다시 말해 굴 근방이라는 뜻.

● 앞섰갓 - 울섰을 하여 막았다는 산으로 마을 앞에 있다.

● 흰디미 - 산 흙이 희면서 더미를 이룬다는 산. 더미를 이 지방에서는 ‘디미’라고 한다.

● 돌백산 - 선돌이 있는 산.

● 지은골 - 깊고 깊은 골짜기에 긴 발이 있는데 하도 길어서 밭 매는데 너무 지겨워서 ‘지은골’이라 한다고 함. 지겹다는 것이 지은으로 변한 것이다.

● 진등산 - 산등이 진산.

● 큰갓 - 송국제 이순상의 묘가 있는 산. 큰 인물이 묻힌 산.

● 못골 앞들 - 못골 앞에 있는 들.

● 노루골 - 옛날에 노루가 많이 다니던 골짜기.

● 새비린골 - 옛날 새가 하도 많

이 날아와 죽어서 새가 비린내가 많

이 난다는 골짜기. ≡새비진골

- 거무산 - 산이 하도 우거져서

검은 산. ≡검은산

- 최평들 - 최 씨들이 사는 마을

앞의 들이란 뜻.

- 최평보 - 최 씨 마을 앞에 있는

들에 물대기 위해 막은 보

- 최평보 도랑 - 최평들에 물대

는 도랑.

- 신수골 - 묘가 있는 곳인데 산

수유나무가 있는 곳이라 한다.

- 양정들 - 양수작업을 하여 농

사짓는 들 양수가 ‘양정’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 못밑들 - 못 밑에 있는 들.

- 바밭골 - 삼밭이 있던 밭의 골

짜기인데 바깥쪽에 있는 골짜기라 한다.

- 흰디미산 - 산이 하얗게 보이

는 산.

- 벼락밭골 - 벼락이 친 곳에 있

는 밭 골짜기. ≡벼락골, 벼락밭골

- 굴리방정 - 소 코뚜레 같이 두

렁벙한 산등, 굴러서 된 방같이 된

곳이란 뜻.

- 길곡 - 긴 골짜기.

- 갱빈마을 - 강변에 있는 마을.

- 서당골 - 옛날 서당이 있던 곳.

- 줄미땅 - 묘가 줄지어 있는 곳.

- 굴미기 - 굴이 있는 입구.

- 어분골 당고개 - 못골 어분골

서 느븐드리로 넘어가는 고개.

- 길곡 당고개 - 못골 길곡서 구

일로 넘어가는 고개.

- 바밭골 - 바깥쪽에 있는 밭의

골짜기.

- 질곡 - 골짜기가 긴 곳을 말한

다. “길다”는 것을 “질다”고 한다.

- 삼밭골 - 옛날 삼(대마)을 재배

하던 밭이 있는 골.

- 돈태구당 - 옛날 일꾼들이 지

게를 받쳐 놓고 쉬면서 돈치기 놀이 하던 곳. “구덩이”를 이 지방에서는

“구당”또는 “구덩”라고 한다.

- 서당골 - 서당이 있던 골.

- 솟돌방구 - 솟돌 하는 돌이 있

는 바위.

- 꼬도태 - 곧은 골짜기.

- 맬밭 - 메밀을 재배하던 밭.

● 도둑놈골짜기 - 옛날 봉계서 매우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데 주인이 뒤따라오니 도둑이 갑자기 골짜기에서 죽었다고 한다.

● 벼락 바위 - 벼락 맞은 바위.

● 범바우굴 - 범이 살았다는 굴이 있는 바위가 있는 골짜기.

● 안산고개 - 마을 앞에 있는 산의 고개.

● 오방구 - 공 들이는 바위가 다섯이 있는 곳.

● 치고개 - 고개가 매우 가팔라서 쳐다보고 오르는 고개, 쳐다본다는 말을 이 지방에서는 치다 본다고 함.

● 황장군미 - 황 씨 성을 가진 장군의 묘가 있는 곳.

● 송국제미 - 송국제 이순상의 묘를 말한다.

● 복심이 - 매우 차가운 물이 새는 곳으로 여름 삼복더위에 많이 씻는 곳인데 ‘복 씻는다는’ 것이 ‘복심’이 된 것이다. ≡복심

● 호두락 바위 - 길이 안 좋다는 데 있는 바위로서 회오리바람이 많

이 부는 바위, 회오리바람을 지방에서는 ‘호두락 바람’이라고 함.

● 면유름 - 면 소유의 산. ‘면유림’이란 것을 ‘면유름’으로 부름.

● 토끼바위 - 토끼굴이 있는데 토끼가 많이 살았던 바위.

● 소티미만디 - 경주시 효현동 소티 마을 사람들의 묘가 있는 산마루.

● 말뚝메 - 말뚝 같이 둥근 산.

● 양정보 - 양수작업을 해서 물을 대는 논들의 보.

● 최평보 - 최 씨 마을 앞들에 물을 대는 보.

● 꼬득새 - 골짜기가 꼬부랑하게 꼬인 골.

● 지음골 - 골이 하도 길어서 밭을 매는데 지겹다는 뜻.

● 어분골 - 얼음 같이 차가운 물이 새는 골짜기. ‘얼음같이 차가운 우물’을 ‘어운골’이라 부름.

● 진딩 - 산등이 긴등.

● 안골 - 마을 안쪽에 있는 골짜기.

● 점음달 - 점골의 음달쪽.

- 자래등 - 자래 같이 생긴 등.
- 김미산 - 산이 깊어서 겹다는 산.
- 두리봉 - 두리번하듯 생긴 산 봉우리.
- 못갓산 - 못에 딸린 산.
- 윗못 - 인작 학성 이 씨들이 막 았다는 못.
- 한식미 - 한식날 묘제를 지내는 묘가 있는 곳.
- 천주름 - 천이 주름진 것 같이 생긴 산.
- 아래못 - 천작인데 산줄기가 자주 내려와서 자연스레 막은 못. 또는 옛날 큰 웅덩이가 있는데 뚝을 높이고 길게 막은 못이라 한다.
- 못안 - 못 안에 있는 들.
- 동메 모랑지 - 못골서 재량으로 가는 산의 모퉁이.
- 못갓 비알 - 못에 딸린 산의 비탈.
- 물방앗간거리 - 옛날 물방아가 있던 곳.
- 못방구 - 문안에 있는 바위.
- 자래방구 - 못 안에 있는데 자

래 같이 생긴 바위.

- 당고개 - 고개 마루에 돌무더기 당이 있는 고개.
- 거북산 - 거북이 같이 생긴 산.
- 봉사공산 - 최 씨들 묘가 있는데 봉사공 최진망의 묘가 있는 산.
- 구일고개 - 못골서 구일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 마루에 돌무더기 당이 있다.
- 소티미 - 경주시 효현동 소티마을 사람의 묘.

### < 달미 >

달 같이 둥근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달집을 만들고 불을 피우고 달맞이한테서 ‘달메’, ‘달산’으로 여기고 그 아래 있는 마을을 ‘달미’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달메’가 부르기 쉽게 ‘달미’가 되었다. 그리고 한자로 달월(月)자와 메산(山)자를 따서 지금은 월산(月山)이라 한다. 또 달 같이 생긴 산에 석실 고분이 있는데 어느 때인가 도굴을 당하였다. 거기에 달집을 삼고 불을 피우고 달맞이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니 그 아래 있는 마을을 ‘달미’라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마을이 없어졌단다. 이 마을은 이조2리 전포에 가면 월산 구역이라 하고 월산1리에 가면 전포 구역이라 하는가 하면 다른 마을서도 이조2리 전포로 잘못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월산1리 구역이다.

#### ■ 동계: 안 지냄.

#### ■ 토박이 땅이름

● 보듬 - 보 물대는 논 중에서 물이 제일 잘 빠지는 곳이며 등성이인데 모래 언덕같이 생긴 곳 보듬이 ‘보듬’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 달안지 - 달같이 생긴 산의 안 골짜기. 달을 안은 골짜기란 뜻.

● 비봉태기 - 북병태라고 하는데 옛날에 병사들을 잠복시키던 곳이라 함.

● 산수골 - 옛날 산수유나무가 많았던 골짜기.

● 비봉등 - 비가 서 있는 등.

● 하구 - 물대는 들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들.

● 중도랑 - 도랑 중에서 중간에 있는 도랑과 논들.

● 말랑도랑 - 물대는 도랑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도랑과 논들.

● 교천갯 - 경주 교천 최 부자 집 산으로 묘가 있는 산.

● 돌백이 - 돌이 박혀있는 곳. 박혀 있는 돌이 선돌이다.

● 북병태 - 옛날 군을 잠복시키던 곳. 임진왜란 당시 우리 군이 이곳에 숨어 왜적을 무찔렀다 한다. ≡ 비봉태기

● 달내 - 달 같이 둥글게 휘돌아 흐르는 내인데 달미 마을 앞에 흐르는 내.

● 비봉태 - 경주 고촌 최 부자 집 산으로 묘에 비가 서 있는 터라고 한다.

#### < 너죽골 >

‘여재’라는 커다란 고개가 있었는데

데 그 근처에 대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여죽굴이 부르기 쉽게 ‘너죽굴’이 되었다. 그리고 ‘여재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너로 하여금 재주가 많이 난다는 마을인데 너란 바로 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마을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물맛이 너무나 좋아 이 물 때문에 이 마을에서 재주 있는 인재가 많이 난다고 한다. 이곳의 대나무는 순이 늦게 올라와서 대나무 잎이 늦게 피게 되어 늦죽이 ‘너죽’으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지나가는 노승이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 하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 우물의 물을 한추발(흙으로 만든 사발, 똑배기를 말함)로 떠주었다. 그 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늦게 핀 땃잎이라 부드러운 잎을 물에 띄워 드리니,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급히 먹을 수 없어 후후 불면서 천천히 먹었다고 한다. 물맛을 보고는 너무나 감탄하였는데 그 후부터 이 마을에 재주 있는 인재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다. 그런데 또 ‘너죽굴’이란 말보다도

‘여재’란 마을 이름을 더 듣기 좋아한다.

■ **동제:** 현재 안 지냄.

■ **토박이 땅이름**

● 보듬 - 봇물 대는 논 중에서 물이 제일 잘 빠지면서 마르는 논이라 함. 보의 듕성이, 보가 들어 업친 곳이다.

● 달안지 - 달을 안은 곳. 다시 말해 달 같이 생긴 산을 안은 곳이란 뜻.

● 앞음달 - 마을 앞에 음달진 곳.

● 교천갯 - 교천 사람 소유의 산 경주교동 최 부자인 최 준의 산. 교천은 경주시 교동을 말하는데 경주 향교가 있는 마을인데 앞에 남천이 흐름으로 해서 교천이라고도 부름.

● 돌백이 - 선돌이 있는 산.

● 선돌 - 돌이 서 있는 곳. 옛날 부족과 부족 간의 경계에 서 있는 돌. 2013년 4월-6월경 발굴 작업을 했다. 그리고 2013년 6월 경부고속

도로 확장으로 없어졌다. 이 선돌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아주 옛날, 돌이 마구 걸어가 있는 것을 어느 나이 지긋한 여인이 보고 말했다. “돌도 걸어가네” 그러니까 돌이 그 자리에 선 것이라 한다. 선돌 앞에는 발굴 작업을 해서 돌이 많이 깔려 있고 숯가마가 많이 있었다. ≍선돌백이

- 못바지 - 못물을 대는 논.

- 혼디바위 - 이 바위가 마을에서 보이면 마을 아이들이 ‘혼디’라는 부스럼이 나기 때문에 이 산에 나무를 치지 않았다 함.

- 용마 방구 - 용 발자국 같은 것이 있는 바위.

- 술잘 방구 - 바위에 파아란 술잔같이 이끼가 끼어 있는 바위.

- 기방구 - 이 바위 밑에 바다에 사는 ‘게’가 살았다고 기방구라 하는데 이 지방에서는 ‘게’를 ‘기’라고 한다.

- 정굴 - 옛날 이곳에서 웅기를 굶던 곳이라 한다.

- 다랑지 - 논둑이 많은 논들.

- 뒷굴 -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 불선바우 - 불을 켜고 빌던 바위.

- 칠성바우 - 옛날 불을 켜고 빌던 바위. 이 바위는 돌백이산의 동쪽 끝에 있는 바위인데 빌면서 파인 곳이 많다. 성혈구멍이 수없이 많다. 아침 해 뜰 때 동쪽을 보고 많이 빈 것 같다. 또는 저녁달 뜰 때도 많이 빌었을 것 같다. 그런데 2013년 6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때 없어졌다. 이 바위 아래 선돌이 있고 해서 문화재 발굴 작업도 했다. 그때 글쓴이는 성혈 구멍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앞운굴 - 이 마을 앞에 있는 우물.

- 굴밑고개 - 굴이 있는 아래의 고개.

- 불미기고개 - 불을 밝히고 빌던 곳의 들머리에 있는 고개.

- 굴미기 - 굴 같이 깊은 산골짜기의 들머리.

- 굴미기 고개 - 못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 위에 굴이 있다.

● 힌디미 - 하얀색의 돌이 있는 산.

● 산막골 - 산에 막을 지어 놓고 살던 곳.

● 혈등 - 사람의 핏줄같이 생긴 산의 등.

● 솟구덩이 - 솟 굽던 구덩이가 있는 곳.

### 월산2리(재량, 미역내)

#### < 미역내 >

이곳은 냇가라 여름에 먹을 많이 감던 ‘떡내’가 ‘미역내’로 변한 것이다. ‘떡내골’이 ‘미역내’로 부르면서 이곳에 미역이 난다고 한 것이다. 냇가라 바위에 미역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 ■ 동계

나무: 포고 나무였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음.

제일: 정월대보름날(음 1. 15.)

30여 년 전부터 안 지냄.

#### ■ 토박이 땅이름

● 미역내보 - 미역내 마을에 있는 보.

● 미역내들 - 미역내 마을 앞에 있는 들.

● 동보들 - 이 마을 동쪽에 있는 봇물을 대는 들.

● 내명 - 냇물이 매우 많다는 데서 유래했음.

● 내명씻갓 - 내명에 있는 씻갓.

● 뺨덕거리 - 이곳에 물레방아가 있을 때 돌아가면서 물레방아가 빠거덕 빠거덕 소리가 나는데서 빠거덕거림이 ‘뺨덕거리’로 변함.

● 합수듬백이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와 봉계서 내려오는 살거내물과 명계서 내려오는 흙실내 물이 합쳐지는 곳에 있는 덩벙. ‘덤벙’을 이 지방에서는 ‘듬백이’라 한다.

● 내명갱빈 - 내명 앞 냇가. 냇가를 이곳에서는 ‘갱빈’이라고 함.

● 동보 - 마을 동쪽에 있는 보.



● 동보도랑 - 동북물이 흐르는 도랑.

● 부채수 - 미역골 앞을 흐르는 내가 굽이치면서 청소를 이루는 곳이다. 옆 산에 절이 있고 부처가 있었다고 한다.

● 미역내 - 미역내 마을 앞을 흐르는 내를 말하는데 노곡 2리 별내와 합수되는 곳까지를 말한다. 옛날이 냇가에서 먹을 많이 감았다고 해서 내를 ‘미역내’라고 함. 들판에 있는 마을을 ‘미역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미역골’이라 함.

● 부채수덤백이 - 미역내 물이 굽이치면서 덩벙을 이루는 곳인데 옆 산에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 함.

### < 재량 >

이 마을에는 인재가 많이 난다고 ‘재량’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음. 또 이 마을에 고개가 많다고 해서 ‘재량’이라고 한다고도 함. 임진왜란 때 진주봉에 군도 군이지만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던 곳이란 뜻이다. 이 수

많은 인재들이 진주봉에 거주하고 사망진에서 사방을 망보며 진지를 이룬 곳이라고 함. 이 마을 뒷산에 대형 고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인재들이 많이 있는 듯함.

### ■ 동계

나무: 왜나무 한 그루.

제일: 정월 대보름날(음 1. 15.)

현재는 안 지냄.

### ■ 토박이 땅이름

● 공동산-이 마을 공동묘지가 있는 산.

● 사망진 고개 만디 - 군이 사방을 잘 방어한다는 고개 마루. 사방을 망보는 진지란 뜻이다. 또는 임진왜란 때 군이 많이 죽은 곳임.

● 큰재물골 - 못을 막았는데 물이 자꾸 세어 나와서 재로서 못에 새는 물을 막았는데 큰골이라 한다.

● 작은 재물물골 - 재물골 중에서 작은 골.

● 순박골 - 순 밭만 있는 골이라

한다. 순 발이 ‘순박’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 재미골 - 재를 넘어 미역내로 간다고 해서 부른다고 한다.

● 큰 재미골 - 재미골 중에서 큰 골짜기.

● 작은 재미골 - 재미골 중에서 작은 골짜기.

● 딘버리 - 고되게 고개를 넘는다는 길. 된버린 → 딘버리 → 딘버리.

● 사망진 - 이곳에서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망보면서 싸우다 많이 죽은 진지라고 전해짐.

● 합창미 - 합장한 큰 묘가 있는 산.

● 물탕 - 여름에 물맞이 하던 곳.

● 물박거리 - 물레방아가 있었던 곳. 물을 받아넘기는 곳이란 뜻이다.

● 메띠기산 - 메뚜기가 많은 산. 메뚜기 같이 생긴 산.

● 섯갓 -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울섯으로 막은 산.

● 두루봉 - 두리번한 산 봉우리.

● 비뚝갓 - 뚱뚱하게 툭 튀어 나

온 산.

● 봇갓 - 보 소유의 산.

● 굴바우고개 - 재량에서 구일로 가는 고개인데 굴이 뚫린 바위가 있는 고개.

● 문등골 - 문 같이 생긴 등이 있는 골.

● 치고개 - 재량에서 안심 구일 가는 고개인데 꿩고개라 함. 또는 매우 가팔라서 쳐다보며 간다는 고개. 쳐다본다는 것을 이 지방에서는 ‘치다본다’고 한다.

● 범우골 - 옛날 이조2리 전포마을 ‘버든내’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가을에 미꾸라지를 잡으려 했다. 통발을 놓기 위해 섬을 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어떤 사람이 말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 가까워 와서 냇뚝을 뛰는데 보니 큰 범이었다. 재빨리 섬을 뒤집어쓰고 죽은 듯이 있으니 범새를 맡으면서 지나갔다. 그러고 며칠 뒤에 경주 부윤이 알고 명포수를 불러 범을 잡으라고 하여 찾아 나섰 다. 이곳 범의 굴을 보니 흔적이 보

여서 발가벗고 기다렸다. 때가 돼서  
마침 범이 오기에 총을 쏘 잡으니  
범이 얼마나 큰지 장정 8명이 목도  
를 하여 경주 관아 처마에 달아야  
할 정도였다. 그 꼬리가 땅에 닿을  
만큼 크더라고 한다. ≍범바우골

● 범바우 - 범이 있었다는 굴이  
있는 바위.

● 범바우들 - 범바우골에서 내려  
오는 물을 받아 농사짓는 논들.

● 범바우보 - 범바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은 보

● 범바우 봇갯 - 범바우 보에 딸  
린 산.

● 건너들 - 마을 건너에 있는 들.

● 재량앞산 - 재량마을 앞에 있  
는 산.

● 새태 - 새터. 새로 터를 잡은  
마을.

● 중새태 - 중간쯤에 새로 터를  
잡은 마을.

● 사망진이 - 재량에서 활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은 고속도로  
가 되었음. 사망으로 잘 방어하는 진  
지라 함.

● 서당골 - 서당이 있던 골짜기.

● 굴바우 - 굴이 있는 바위.

● 오동나무도加里 - 옛날에 오동  
나무가 있던 논뚝기.

● 방구배미 - 바위가 있던 논.

● 동네산 - 마을 안쪽에 있는 산.

● 동메산 - 마을 끝에 있는 산.

● 당수 나무질 - 당수 나무가 있  
는 거리.

● 자래등 - 자라같이 생긴 등.  
“자라”을 여기서는 “자래”라 함.

● 등때만디 - 붉은 흙이 보이는  
산의 마루.

● 건너들 - 내 건너 있는 들.

● 안동네 - 안쪽에 있는 마을.

● 앞산 - 마을 앞에 있는 산.

● 벽심이 - 벌어진 곳이란 뜻인  
데 ‘번디기’가 ‘벽심’으로 됨.

● 갯골짜 - 머리에 쓰는 갯 같이  
생긴 골짜기.

● 점골 - 옛날 용기를 굽던 곳.  
용기 굽는 곳을 ‘점골’이라 함.

● 복심이 - 산골짜기에 물이 새  
는데 여름 삼복더위에 많은 사람들  
이 씻으러 감. 복더위 씻는다는 것을

‘복심’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 두리봉 - 산 봉우리가 두리번  
한 것.

● 물바가리 - 물을 막았다는 곳  
으로 못이 두 군데나 있는데 물을  
바가지로 담은 곳이란 뜻이다.

● 최평봇갓 - 최평보에 딸린 산.

● 새집걸 - 옛날 상여를 보관하  
던 집이 있던 거리. 상여를 이 지방  
에서는 ‘행생이’ 또는 ‘생이’라 하는  
데 ‘생이 집거리’가 ‘새집거리’로 바  
뀜.

● 재못골 못 - 재못골에 있는 못  
인데 재로서 못을 막았음.

● 재못골 - 재로서 못을 막았다  
는 곳으로 못이 있음.



▲ 2017. 8. 31 오랑캐꽃 (장은걸 11살)

## 한국 토종 이야기

홍석화 《토종문화와 모듬살이》에서 옮김.

### 굴

사람이 지구에 살기 시작하면서 살았던 최초의 집이 동굴이었음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집의 가장 원시 형태는 동굴을 그럴듯하게 열기설기 꾸며 놓은 ‘굴 움막’이었고, 그것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자연 동굴이 아닌, 사람이 땅을 파고 들어간 움집이었을 것이다.

고고학자가 아닌 글쓴이로서는 그 세세한 자료를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중국 중북부 고원지대인 섬서성, 하남성 북부, 그리고 산서성, 감숙성 동부 일대 사람들의 굴 생활 모습이 TV매체에 여러 번 소개되었다. 우리의 먼 조상의 후예라고 알려진 인디언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굴

을 그들의 살림터로 살았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요즘도 산에서 삶을 배우려 하는 분들은 외딴 산골의 빈 집도 마다하고 자연 토굴에 터를 잡아 몇 년이고 운기 조신, 생식(단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겠지만)과 대자연에 몸을 맡긴 수련기간을 거쳐 더욱 튼튼한 신체와 정신을 얻었다는 일들이 심심찮게 전해온다.

### 얼음 창고, 식품 보관용 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은 그만두겠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귀중한 증거물로 남아 있는 경주 석빙고만 보아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속 넓이를 보면 길이가 19m, 너비 6m, 높이 5.4m 정도의 규모인

이 얼음 창고용 굴은, 입구에서부터 점점 깊어져 속으로 들어가며 널찍한 공간이 생겨나는 구조이다. 입구는 반월성 안쪽으로 나 있고,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천정은 아치형으로 다섯 개의 기둥에 장대석이 걸쳐 있다. 장대석을 설치한 곳에 구멍이 셋 뚫려 있고, 바닥 한가운데에 배수구가 경사지게 패어 있어 물이 밖으로 흘러 나가게 되어 있다. 지금의 건물 못지않은 훌륭한 구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보물 제66호).

글쓴이가 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3~4년 전, 경기도 가평의 한 민가에서 식품 저장용 굴을 부엌 한쪽 귀퉁이에 파놓고 훌륭하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다. 그 뒤로 여기저기 물어가며 현장답사를 한 결과, 처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굴을 실제로 쓰고 있었고, 이를 새롭다고 해야 할까, 그냥 응용했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 전통의 흐름을 충분히 쓰는 지혜들을 확인하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우선 전통 ‘굴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곳은 뭐니 뭐니 해도 사찰들이었다. 예천 보문사의 뒤꼍에 있는 굴은 절은 보수할 때 아주 튼실하게 큼직한 돌덩이들로 입구와 전면을 쌓아 놓아 오랜 기간 쓰도록 하였다. 왼편 중간 지점에는 바람이 빠질 수 있는 장치까지 달아놓았다.

문경 김룡사의 굴은 꽤나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굴의 윗부분을 곧바로 장독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붕에는 기화를 얹어 모양새를 내었는데, 특히 벽으로 만든 돌과 흙으로 쌓은 벽엔 담쟁이넝쿨들이 얹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정취를 느끼게 한다.

합천 해인사 홍제암의 굴은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아도 괜찮겠다. 돌 축대를 정성스레 쌓았고, 무덤 형태에 가까운 도톰한 동형 윗부분에는 경사진 나무숲이 곧바로 이어져 있다. 장독대는 굴 입구 한편에 자리하고 있어 굴에 보관하는 내용물과 함께 절 살림의 밑천이 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안동 유모사의 굴은 아주 가파른

경사지에 뚫어 입구만 드러나 보이는 형태이다. 굴 내부에는 11월 초 입에도 수박덩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렇듯 몇몇 사찰들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굴을 보관창고, 특히 식품 저장 장소로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들의 이야기를 모아 보면 거의 비슷한 결론이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1년 사시장철 거의 비슷한 온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섭씨 15~17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른바 냉동 식품이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굴만 가지고도 웬만한 식품의 저장·보관에 별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각종 곡식은 물론이고 육류나 채소,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들, 장기간 저장하며 발효·숙성시켜야 되는 젓갈, 술, 김치 같은 발효 식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일반 민가에서 굴을 쓰는 경우는 어느 시골에서도 보기가 힘들어졌으나, 앞서 말한 민가에서는 부엌 한 귀퉁이를 조금 깊이 파서(약 2평정

도), 벽에는 돌을 쌓고 천정은 나무를 가로질러 얹은 위에 돌흙을 반죽하여 갈무리를 지었다. 그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쓰고 있는 당사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한여름 무더위에 지칠 때 이 굴 속에 들어가 한참 있으면 그렇게 시원한 수가 없다고 한다.

### ‘광산 갯도’에서 탄생한 광천 새우젓

앞서 언급한 발효식품의 진가를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마 광천 새우젓일 것이다. 우리나라 젓갈의 주산지는 서·남해안 일대이다. 물량으로 따지자면 목포가 광천보다 몇 배가 더 모여드는 집산지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목포 새우젓보다 광천 새우젓을 더 많이 찾고 있고, 더 좋은 물건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광천 새우젓이 이 땅의 젓갈 업계 판도에서 요지부동의 ‘토굴 젓갈’로 인정받게 된 사연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의 결과였다.

행정구역으로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독배마을, 산세가 울울창창한 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해안 마을이다. 간척지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이곳은 포구였다고 한다. 옛날이 심심찮게 모여들던 이 마을은 일제시대 광산이 컸다. 어느 곳은 파먹어 갔고, 어떤 곳은 조금 파헤치다가 품질이 신통치 않고 사정도 여의치 않아 그냥 팽개쳐 둔 것도 이곳 저곳에 널려 있었다.

60년대 이 마을의 윤씨 할아버지가 ‘그놈의 놀리는 광산 굴’ 속에 젓갈 장독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다. 몇 개월이 지나 젓갈 맛을 본 할아버지는 그 놀라운 맛을 도저히 혼자서 즐길 수만은 없었다. 이내 온 동네 사람이 굴 속에 장독을 갖다 놓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토굴 새우젓은 서서히 소문에 소문을 더해 입에서 입으로 그 명망이 퍼져 갔고, 이제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광천 새우젓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 마을엔 사방 50m씩 되는

굴이 약 20여 개 있다. 이 중에는 일제 때 파놓은 폐광도 있고, 최근 들어 일부러 뚫은 것도 여러 개 된다고 한다.

굴 속에 들어가 보니 원래가 광산이었던 곳이라 사방 벽이 암반층임이 한눈에 들어왔다. 새우젓 드럼통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고, 하지만 한두 가지 눈에 거슬리는 점도 있었다. 통풍을 위한 환기시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은 것과 보관용기로 장독 대신 드럼통에 비닐을 싸 바른 용기를 사용하는 점.

아마 독배마을 사람들로서는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며 열심히 제품을 생산해 돈벌이하는 일만으로 바빠서 정신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쓸데없이 요란스럽게 ‘광천 새우젓 축제’를 열어 시끌벅적하기 전에 그 이름에 값하는 진국 명품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굴 속에서 하는 버섯 재배

이와 함께 충주 지역에서는 여기



저기에 사과 창고로 굴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요즘은 충주댐 때문에 조금 시들해졌지만, 충주 일대 산간지역에서는 경북 사과 못지않은 최상품의 사과가 생산된다. 이를 보관하는 창고는 보통 넓이가 50여 평 이상 되어야 하는 대형 창고여야 했다. 그래서 흔히들 과수원 경사지의 지형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반 지하 형태의 굴 창고가 많았다. 지붕은 슬레이트이긴 해도 이 창고는 보관 창고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여름에 피신처라고 과수원 주인들은 입을 모았다.

또 하나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은 철도의 폐 터널을 이용한 버섯 재배였다. 충주 동량·산척면 일대 인등산 자락에는 80년 10월 충북선의 복선화 사업으로 노선이 변경(직선화)되면서 다수의 폐 터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일대 주민들이 그 폐 터널에다가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93년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3년간 농촌지도소와 합동 연구

실험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자그마한 몇 가지 보완 과제는 있더라도, 일단 그 가능성은 성공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다.

동량면 조동리 이응범(33세) 씨도 터널 속 기온과 습도의 정도가 느타리버섯에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시설비가 거의 들지 않는 터널 공간에서 재배한 결과, 버섯의 배양 단계보다는 생육 단계에 더욱 적합하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현재 바닥 면적 700평에 버섯을 생육시키고 있는데, 버섯의 생육·출하에 가장 어려운 계절인 한여름에 고품질(검은색 갓의 크기가 작고, 대의 길이가 긴)의 느타리를 생산해낼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고 하였다. 한 가지 보완해야 할 과제는 터널의 긴 공간을 어떻게 환기시키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굴은 식품의 보관·저장고로서 새로운 눈길을 받고 있다. “냉장고 속의 김치와 땅 속에 묻은 김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고개를

절로 끄덕일 것이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의 유지뿐 아니라 지기의 작용을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간사한 지식의 산물과 대자연이 선사하는 보이지 않는 지혜의 선물, 이 둘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 더욱이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찌꺼기에 시달리는 이 현대라는 문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특히 술·식초·젓갈·김치·장 같은 발효식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굴보다 좋은(용기로서는 용기) 곳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품의 생산업자들은 물론이고, 시골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냉장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전래의 굴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일상생활에 널리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 터 잡기

얼마 전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가본다고 버르던 곳이라 살가운 운

치를 만끽할 기대를 가슴 가득 품고 서요.

찾아가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도 잘 돼있고요. 참 좋더군요. 오밀조밀한 돌담 골목엔 담장이덩굴이 제멋대로 뻗어있고, 군두색, 참판대, 표수 댁을 비롯한口音 자형 대가 집들은 번쩍번쩍하지 않은 옛 멋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자그마한 연못에, 마당 곳곳에 자연스레 자리한 꽃나무들 하며, 그런가 하면 할머니 혼자 사는 쪼그마한 집들도 마을 곳곳에 아우러져 있고요.

같이 동행했던 분들도 모두들 “아, 나도 어릴 적 이런 데서 살았는데...” 하며 좋아들 하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론 참 아찔한 생각도 들더군요. 88년에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되고, 이런저런 책자에 소개되자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이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원래 있지도 않던 물레방아, 연자방아, 디딜방아도 갖다 놓고, 떨어져 나간 그 위에 흙칠을 하고, 아예 어떤 집은

자동차 드나들기 편하게 시멘트 포장까지 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1~2년 사이에 외암리는 여느 ‘민속마을’과 다를 바 없는 관광 유원지화될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거였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승주 낙안읍성처럼 말입니다.

허긴 나라에서 ‘지정’만 해놓고 어떻게 관리할지 다른 대책은 거의 없으니 주민들로서도 매우 고통이 크겠지요. 집수리도 마음대로 못하고, 먹고 살긴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꾸역 꾸역 몰려들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국에서 몇 안 남은 전통 생활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한 마을이지만, 이를 온전히 보존할 대책은 과연 전혀 없는 것일까요.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1. 전통가옥 및 마을 전체의 형태를 보존·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이 다달이 다만 몇 십만 원 씩이라도 가구마다 나눠줘야 합니다. 이를 책

임지고 관장하는 보존위원회(주민·행정·문화인들로 구성)도 날마다 모임을 가져야겠지요.

2. 관광,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마을 외곽에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이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겠지요.

3. 남아서 살고 계신 분들은 원래 하던 농사를 꾸준히 짓되, 그 생산물은 지역 농협과 위원회에서 모두 사들여서, 연엽주 같은 특산품을 확대·가공하여 주민 전체의 사업으로 참여·배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모아 보지만, 제 생각대로 될 일이 거의 없다는 슬픔도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숨길 필요는 없겠지요.

이와는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얘기도 아닌 뉘두리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외암리 같은 ‘전통마을의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뜻 맞는 사람 두셋이라도 좀 모여 살아볼 방법은 없을까 하는

궁리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 가을에 1~2군데서 이런 실험을 위해 터를 잡고 집도 짓고 들어가 살기 시작한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렇게하면 고향 만들기, 마을 만들기, 쉼터이자 명상터 만들기, 뭐라 이름 붙이든 이런 추구랄까, 지향이랄까 하는 흐름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런 일을 실지로 추진하려면 터 잡는데 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보자”는 것이 그 바탕에 있는 취지인데, 정작 그 일의 실마리를 풀려면 돈이 들어야 하니,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수수께끼가 아닌가 여겨 집니다.

이렇게 한번 꿈을 꾸 봅시다. 어떤 독지가가 “이 땅을 내놓을 테니, 죽을 쑤든 밥을 하든 마음대로들 살아보시오! 소유권도 포기하겠소. 조합을 만들어 공동소유로 해도 좋습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고 침시다. 다음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자 무슨 짓을 하든지 적은 생활비는 벌어들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대강은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먹을거리를 어디서 구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한 농토, 이를 위한 농사꾼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틈틈이 품앗이로 일을 도와야 할 거고요.

아이고, 쓰다 보니 또 자꾸 금강산 일만 이천봉 꿈속을 헤매는 뉘그러가 길어졌군요. 여러 벼들, 긴 겨울이 오기 전 아산 외암리 들러 깊은 산을 함께 둘러볼 기회를 갖기를 고대해 봅니다. 내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 포항의 알려지지 않은 명물, 과메기

꽂치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흔하디 흔한 대중어종이지만, 과메기 하면 아마 처음 들어 보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과메기란 간단히 말해서 ‘굴비처럼 말린

꽁치’를 가리킨다.

과메기란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명확히 연구된 발표가 되지 않아 딱 부러지게 말할 순 없으나, 포항이나 인근 지역의 노인 분들에게 여쭙보니 ‘퀘어 맨다’에서 생겨난 말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 옛날에는 대나무 가지에다 꽁치의 눈 부분을 퀘어 매달아 말렸던 데에서 과메기란 말이 굳어진 것이라 보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 생선들 중에서 이렇게 ‘말려서 보관 · 저장하는 물고기’는 아마 명태와 조기가 많을 것이다. 말린 명태나 조기의 이름이 북어 · 굴비로 전혀 다른 이름이 생겨나듯이, 꽁치의 경우도 과메기란 그윽한 이름이 또 하나 생겨난 것이다.

### 포항의 토종 꽁치

온 누리 자랑거리인 거대한 제철 공장이 있는 포항은 문자 그대로 포구이자 항구이기도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릉도를 가려면 포항에서 배를 타고 8시간가량 가야만 했

다. (지금은 묵호와 후포에서 3~4시간이면 가는 쾌속선이 생겨났다) 부산, 인천, 목포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항구가 바로 포항인 것이고, 지금도 외국에서 오는 배를 맞이하는 전용부두가 따로 마련돼 있는 정도이기도 하다.

또한 원양어선과 연근해 어선들이 잡아들인 각종 바다고기들을 풀어놓는 데가 바로 포항이며, 태풍이 불어온다든가 하면 임시로 며칠이나 배들이 머물며 피하는 대피 항구이기도 한 곳. 이름 그대로 커다란 포구이자 항구인 포항.

과메기는 바로 이 포항 지역에서 만 널리 알려진 특별한 꽁치인 것이다. 원래 과메기는 경북 · 강원 · 함경도 일대의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청어가 주재료였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청어보다는 꽁치가 더 많이 잡히고, 원양어선으로 들여오는 (수입 포함) 꽁치의 양이 엄청 커지니까 자연스레 꽁치 과메기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취사연료가 주로 연탄이었던 시

절엔 집집마다 이 콩치 굵는 냄새 연기가 제법 우리들 코를 즐겁게 하곤 했었지만, 이 과메기가 널리 알려지지 못하게 된 것은, 이 놈이 고작 한철(겨울)에만 구경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북어나 굴비처럼 완전히 말려서 1년 열두 달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날이나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생산 자체가 뚝 끊어져 버리기예, 언 콩치처럼 언제든지 손쉽게 식탁에 올리는 대중화가 되지 못한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과메기의 진가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렇듯 과메기는 북어나 굴비와는 달리, 완전히 말려진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덜 말려져 꾸덕꾸덕 살덩이가 손가락으로 만져 잡히는 정도라야 진짜 제 맛이 나게 마련이다. 옛날에는 창자도 빼내지 않고, 방향도 배가 하늘을 향하게 말려서 창자가 삭으면서 살 속으로 스며들어가 아주 독특한 맛을 내었다고 하나, 요즘은 창자를 빼내고 말리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는 대도시에 사는 주부들 일손을 덜어주려는지 뼈까지 발라

낸 과메기도 만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 풍부한 영양가

아무튼 배에서 가져온 콩치를 ‘바람과 햇별이 잘 드는’ 공기 좋은 곳에서 한겨울에 말리면, 이놈이 명태처럼 얼었다 녹았다 하며 저절로 말려지는데, 적당하게 말려진 진국 과메기의 맛은 긴말 필요 없다. 쪽쪽 찢어서 가운데 뼈를 발라주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술안주로도 그만이고, 밥반찬으로도 아주 좋다.

한겨울에 포항이나 경주의 허름한 술집엘 가면 으레 이 과메기가 있기 마련이고, 포항 중앙시장에는 인근 지역에서 가져온 과메기들로 산을 이룬다. 하지만 이 과메기도 원양에서 잡은 것보다는 연근해산 토종 콩치가 훨씬 맛이 좋다. 맛이 좋다는 건 그만큼 영양가도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값싸고 흔하디 흔한 콩치지만, 마치 이 땅의 들녘에 흔하게 자라는 들쭉처럼 콩치는 모든 사람의 생선

이란 별명에 걸맞게 풍부한 영양가를 자랑한다. 단백질 함유량이 표준량(3%) 보다 훨씬 많은 8.4%, 단백질 효율도 등이 푸른 생선 중에서 가장 높다.

그 밖에도 쇠고기의 16배나 되는 비타민 A, 불그스레한 육질엔 빈혈에 좋은 비타민 B12, 지글지글한 기름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에 효과가 좋은 EPA, DHA의 불포화지방산. 한마디로 영양덩어리이다.

일제시대엔 ‘사요리 사꾸라보시’라 하여 염장·조미·건조한 꽁치포를 액수로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갔다 한다. “꽁치가 나오면 (일본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안마(按摩)가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꽁치를 즐기는 일본인. 그런 꽁치 중에서도 우리 연안에서 잡은 토종 꽁치로 만든 과메기가 온 나라와 일본까지 널리 알려지고 손쉽게 즐기는 고마운 과메기가 될 날을 고대해 본다.

## 이런 책은 읽지 마시다

이정우 이오덕학교 큰 선생님.

###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에서)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녹색평론 출판사, 김종철/ 김태언 옮김

반개발의 개념이 아직 제대로 알고(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속에(범주에 속하는) 많은 노력들이 벌써 이뤄지고(이미 진행되고) 있다. 불행히도 내가 아는 개발 조직 어떤 것도 그런 계획들을(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갈수록 많은 환경단체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기를(예를) 들면, 세계은행에 환경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도록 압력을 주는(가한) 단체들, 동유럽의 비정부조직에 퍼뜨리기(배포하기) 위해 돈도 받지 않고(무료로) 핵연료의 위험에 관한 문

헌을 편찬하는 단체들, 시골사람들을 도시 빈민가의 주민들과 만나게 하여 그들에게서 땅을 떠나는 것에 관련된 문체에 대하여 듣게 해주어(함으로써) 농촌공동체를 키우려고(강화하려고) 하는(기도하는) 어떤 필리핀 단체가 그렇다.

이러한 노력들 중에서 가장 잘 하는 것(세련된 것) 몇몇은 오랜 기간을 산업 세계에서 지냈고 서구(식) 생활 양식처럼 마음을 사로잡는(매력적인) 모양의(이미지의) 볼품없음을(허구성) 깨달은 제3세계 출신 개인들에 의해 깨우친(교무된) 것들이다. 독일에서 10년 이상 지낸 르완다인 ‘은세쿠에 비지마나’가 좋은 보기(예)이다. 《백인의 천국, 아프리카의 지옥?》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는 처음에는 서



구에 대한 그의 꿈같은(이상화된) 모습 이(이미지가) 어떻게 실제로 되었는가를(강화되었는가) 묘사한다(그려낸다). 그는 즉석식품, 빠른 자동차, 자유로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는(의명성)이 모든 것에 몹시 놀랐다. 이삼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거죽 밑-외로움과 불행, 정의가 없는 것과(부정의) 낭비-을 보기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환상은 하나씩 깨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그 자신의 문화가 서구가 잃어버린 많은 좋은(긍정적인) 자질들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서구사회를 속에서(내부로부터) 경험한 그는 아프리카에(에서의) 서구(식) 개발이 필요 없다는 것과(무용성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부적절성을) 굳게 알게(확신하게) 되었고, 본래의 땅에서(토착적이고) 좀 더 스스로 설 수 있는(자립적인) 대안으로 나아가기(추진하기) 시작했다.

다른 남을 이끌만한(지도적인) 인물들도 비슷한(유사한) 경험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중에는) 말레이시아의 제3세계 네트워크의 마틴

코어, 케냐의 왕가리 마아타이, 인도의 반다나 쉬바와 아닐 아가르왈, 버키나 파소의 피에르 라비가 있다. 제3세계의 더 많은 깨어(의식) 있는 사람들이 현대화의 어두운 면을 몸소(직접) 보기 위해서 서구에서 살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깨어(의식) 있는 서구인들이 개발하지 않는 운동에(반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서구문화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정부와 원조기관에 압력을 줄(가할) 수 있고,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풀뿌리 조직들을 후원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가 부서지는(파괴적인) 변화에 맞서는데(저항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줄(공급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3세계에 대한 서구의 끼어들음(개입은) 무엇이든 옳지 않다고 믿는다. 원래(원칙적으로) 이것은 물론 올바른(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편리하게도, 우리 밑바탕(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서구

인으로서 우리의 생활양식은,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에 대한) 빼앗아간 재물에(착취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무너뜨린 바람에 훗날 피해를 갈 수 없는(불가피하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다(회피한다). 게다가 우리는 산업문화의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개발이 덜 된(저개발)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제3세계에 끼지(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면, 보기를(예를) 들어 그곳의 어머니들이 오염된 물에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저 어쩔만 으쓱하고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그들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그들도 그걸 겪어 봐야 돼요.”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분을 나타내는(표현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다. 결국 이런 태도는 제3세계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대하는(취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즉)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주의를

주어도) 아이들이 불에 손가락을 갖다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그것은 본의는 아닐망정 개발의 속임수를 끊임없이 하는(영속화하는) 태도이다. ‘겪어본다’ 라는 말은 복사가 되지(가능하지) 않은 대상을(모델을) 흉내 낸다는 것을 뜻한다.(의미한다) 할 수 없다는(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진정으로) 눈에 뛰는(효과적인) 반개발이 앞서 가야만(선행되어야만) 오늘날의 문제를 이어갈만한(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소비자 단일문화가 멈추지 않으면(한) 갈수록 깊어지는(심화되는) 가난함,(빈곤) 사회 분열, 자연(생태적) 훼손을 막을 희망은 없다. 그러나 반개발은 그것으로(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기술이(적) 오직 한 가지 길 뿐임을(획일성에) 반대하는데 덧붙여 우리는 지역의 자원, 지식, 기술들의 될 수 있는 데로(가능한) 많은 쓰임을(최대한의 활용을) 북돋아주며(권장함으로써) 생태(적) · 문화(적)의 여러 모양을(다양성을) 끝내(적

적) 막아야 할(저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선진’ 지역이나 ‘개발도상’ 지역을 막론하고 농업(적) 자립이 경제에서 중심된(적) 일을(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들의 눈길과(시각과) 가치관에도 똑같은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가족과의 모듬살이가 더욱 많이 늘어나야(공동체의 결속이 증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출발점이 자연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라면, 이처럼 모두 다른 성질은 당연한(다양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기술과 경제(적) 요구가 우리의 출발점이라면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적면하고) 있는 것 - 특정한 사람들과 장소의 요구에서(로부터) 위험할 만큼 동떨어져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굳어지게(경직되게) 강요되는 개발 본보기(모델) - 이다.

우리는 지역의(적) 것과 세계의(적) 것 사이의 균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세계를 내다보며(적) 생각하고, 지역처럼(적) 행동하라” 라는 말이 오늘날 흔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현대화의 추진력은 모두(전적

으로) 세계화의 방향을 바라보고(향하고) 있다. 지역문화와 지역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동식물 종들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어갈 만한(지속가능한) 길은(중도는) 반드시 중심에만 모이는 것을 벗어나야(탈중심화를) 할(포함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을 둘째치고(막론하고) 벌써(이미) 의존이 극단(적)으로 깊어진 이상, 빠른 시간에(일시에) 경제의 연결고리를 ‘끊고’ 원조를 차단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보기를(예를) 들어, 우리는 그 경제가 모두(전적으로) 농사물을 내다팔(환금작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제3세계의 커피나 숨을(면화물) 갑작스레 사들이지(구입) 않을(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들이 수출용으로 파는 것(환금작물) 대신 지역에서 먹을 만한(소비용) 식량 농사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조계획에 대한 보탬을(지원용) 곧(즉각) 시작할 수는 있다.

경제가 가운데로만 모이지 않는다면(탈중심화와), 그것과 나란히 우리는 에너지 생산도 바꿀(탈중심화할) 필

요가 있다. 이것도 서구와 제3세계에서 함께 일어나야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연료(에너지) 같은 아래조직은(하부구조는) 아직 생각보다(비교적) 막혀(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태양, 바람, 바이오매스, 수력을 쓰는(이용하는) 기술을 해보는(적용하는) 것이 서로에게(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서구 세계는 크나큰(대규모의) 중앙집중(식) 전력생산에 바탕을(기초를) 둔 산업 본보기를(모델을) 밀어붙였다. 모든 것을 부셔뜨리는(파괴적인) 개발을 진정한 원조로 바꾸는(전환시키는) 가장 효과 높은(적인) 방법의 하나는 다시 쓸 수 있는 힘을(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각 지역에서 스스로 쓸(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폭넓은(광범위한) 후원과 보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진정하고 알맞은(적정) 기술은 순전히 경제(적) 면만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높은(고도)’ 기술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그것은 세세한(구체적) 사회

그리고(및) 지리(적) 여건에서 태어나고, 그 여건에 맞도록 조절될 것이다. 땅 가까이 지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바람과 물, 해, 흙, 기온은 지역에 따라 아주(극히) 여러 가지(다양)다. 라다크에서 진흙 벽돌 만들기가 쓸 만한(사용가능한) 진흙의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쓸 만한(사용가능한) 자원을 가장(최대한) 알맞게(적절하게) 써먹으려(이용하려) 한다면, 지역 조건에 맞는 자그마한(소규모)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요구된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마구 억누르는(고압적인) 방법과는 몹시 다르게 다가가는(접근) 방식 - 자연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친밀한 지식 - 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개발이 지역의 자원의 바탕에서(기초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그런 자원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복돋워야 한다. 표준화된 일반(적인) 지식을 외우게 하는 대신에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좁은 전문화와 도시만 바라는(지향의)

서구식 교육은 보다 넓은 생태학(적) 관점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지역을(적) 갖추고(구체성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기초한) 지식은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서(전일적) 그러면서도(동시에) 따로 떨어져 있는(개별적) 것일 것이다. 이렇게 다가가는(접근) 방식은 예로부터 전해온(전통적인) 지식을 영원히(영속) 지키거나 다른(재발) 의견을(견해) 낼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곳(장소)에서 몇백 년 동안(간) 이어온(계속되어온) 생명 그물의(과의) 서로(상호) 작용과 경험의 바탕(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연과학을 합해서(포함해서)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적) 지식을 후원해야 한다. 현대 과학의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중심에서 벗어나야 (탈중심적) 하고, 좀 더 넓은 사람들에게(인구층) 열려(개방되어) 있는 연구를 늘릴(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을(변수들) 만들어져 있는 (인공적인) 실험실의 갇힌(고립된) 조건 속에서 생각할(고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다양한) 문화(적) ·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행해지는) 지역 연구자들의 실험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보기를(예를) 들면, 정교하고 높은(고도) 기술에 의한 종자은행(種子銀行)을 지키는(유지하는) 대신에 농부들에게 이제는 드물어져서 귀한(희귀한) 예전부터 전해오던 농작물을(토착종을) 키우도록 부추기고(권장하고) 그렇게 하여 여러 생물들을(생물다양성을) 늘려가야(영속화하여야) 한다.

농업은 인간의 온갖 욕구 중에서 가장 밑바탕인(기본적인) 것을 채우며(충족시키며), 제3세계의 많은(대다수) 민중에게 있어서 생계의 바로 이어진(직접적인) 원천이다. 그런데도 농부의 지위가 지금처럼 낮았던 일이 없다. 국제(적) 경제 수뇌회의에서 농업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데 그저 ‘장애물’로 치는(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계속된다면) 소규모 농부들은 다음 세대에 없어질(소멸되어) 것이다. 농업에 알맞는의(응분의) 가치를 주고(부여하고), 직업으로서 농

사의 자리를(지위를) 높이도록 아주(적극) 노력하면서(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거스르는(역적시키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닥친(절박한) 일은 없다. 중심을 벗어난(탈중심화된) 개발방식은 작은 크기의(소규모) 농업에 큰(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다. 수출용 농산물(작물)보다 지역 소비용 식량 생산이 두드러진다면(강조된다면), 그들의 생산물이 보조금을 받은 수송체계를 통해 멀리에서 실려 온 생산물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고 크나큰(대규모) 농장과 기업농에 맞는 자본집약(적) 농업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조건에 알맞은(적합한) 농업기술의 개발이 지원을 받는다면, 작았던(소규모) 농부들의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쓰는 게(사용이) 아니라 생태를(적) 더 건전하게 살리는 방법으로 복돋아준다면(권장된다면) 역시 농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벌써(이미) 많이 되어가고(진행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이는 농민시장이 생

겨나고 있고, 온 누리에(전 세계적)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벌써(이미) 증명된 전해 내려온(전통적인) 농업체계의 성공에 깨우쳐(교무되어) 지역에 뿌리를(기초를) 두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속가능한) 대안들을 탐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으로 알려진(공식적인) 지원은 아직 크게 뒤떨어져 있다. 유기농업으로(오로의) 바꿀(전환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교무적인) 김새가(정후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를(적) 부추길 유인책은(인센티브는) 여전히 생명공학과 큰(대규모) 기업농 쪽에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작지만(소규모) 여러 품종(다품종)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빨리(긴급히) 하지(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심에서 벗어난(탈중심화된) 개발 방식은 마침내(필경) 여성의 지위를 높일(강화할) 것이고,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되살리는데(회복시키는데) 이바지할(기여할) 것이다. 산업문화에서 권력은 거의 남

을 밀쳐내는 것으로(배타적으로) 남자들에게 주워진다(부여된다). 산업문화의 주춧돌(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 기술, 경제학은 그 시작부터(발단에서부터)에서부터 남성들이 맡아(주도)해왔다. 남자들이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버림에 따라 개발 때문에(통해) 여자들은 - 빗대어 보나(비유적으로나) 문자 그대로나 - 뒤쳐지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에 있어서도 기계화로 말미암아 모든(전반적으로) 여자들은 바깥으로(주변으로) 밀려나버렸다. 중심에서 벗어난(탈중심화된) 경제는 지역이 뭉치는 힘을(결속을) 높이면서(강화함으로써) 여성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결정과 경제활동의 바깥에(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그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제3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가족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고(온전하고) 힘이 세다.(강력하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돌보아 주고(부양하고) 안정감을 주면서 함께 살고 자란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사이에(간)

이어진 끈도(유대도) 힘센(강력한) 서구식 진보세력에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세력은 세대 사이에(간에) 갈수록 큰 가라짐을(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기(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위기가(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들과 개인이 있을(존재할) 수 있는 강한 모둠생활을(공동체의) 맺도록(유대를) 도와줘야(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센(강력한)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경제는 단순한 하늘나라의 꿈이(유토피아적 이상이) 아니다. 그러한 경제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수천년간 훌륭하게 제 구실을(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경제는 커져가는(성장지향의) 중앙 집중(적)인 체계보다 더욱 공평한 나눔으로(분배를) 쏘리고(지향하고), 사람들의 기본 욕구와 자연자원의 끝자락에(한계에) 더욱 민감하다. 그런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지원하면서(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문화(적) · 생태(적) 여러 가치를(다양성을) 이어가는데(유지하는데) 이바지하게(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고려들은) 일반(적) 개발의 사고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복지에 뿌리(근원적) 뜻을(의미) 갖는 것이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은 인간 복지가말로 확실히 개발의 첫 번째(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탄의 국왕이 말한 것처럼, 한 사회의 복지의 진정한 지표는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총) 행복’인 것이다.

## 18장 - 라다크 설계

라다크는 그야말로 낙원이다. 그것이 부서지다니(파괴되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 여행자, 1975년

내가 라다크에 간 첫해에 만난 여행자들 가운데(중)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일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숙명론적) 그들은 라다크가 바깥(외부) 세계에 드러나면(노출되면) 범죄, 오염, 실업 등(등)이 피할 수 없

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눈에는 진보란 오직 한 가지의 형태만 가질(취할) 수 있는 하나의 자연스럽고 차갑고 혹독한(냉혹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옳다고(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라다크에서 일어나기(발생하기) 시작한 파괴가 필요한 것이(필연적인) 아니라고 느꼈다. 그것은 오히려 바뀔(변경될) 수 있는 특정한 정책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의(인식) 결과였다. 나는 다른 길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에 나는 우연히 경제학자 E. F.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은 개발이 반드시 파괴를 뜻할 필요는 없다는 나의 확신을 굳혀주었다. 나는 라다크의 현대화된 사람들이 겨울 난방을 위해 수입된 석탄과 목재를 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물론 이것이 혹심한 겨울 추위와 싸우기 위해 빈약한 동물의 똥을 태우는 것보다는(에 비해) 엄청난(절대적인) 발전으로 보였다. 그러나 벌써(이미) 분명해지고 있던 것처럼



이러한 연료를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운반해오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고, 값은 해마다 오르고 있었다. 예로부터(전통적인) 자급 경제 속에 있는 가족이 겨울 내내 정해진 날마다(규칙적으로) 연료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유일한) 방법은 레의 현금 경제에 끼어드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많은 라다크 사람들은 땅을 떠나 수도로 몰려갔고, 다시 살아가기 힘든(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끌린(기초한) 물가는 자꾸 치솟는(인플레이션) 경제에 기대어 따라가게(의존적으로) 되었다.

나는 주정부와 중앙정부에, 전통 문화의 강점에 두고(근거하고) 다시 쓸 수 있는(재생가능한) 힘(에너지) 쓰기를(이용을) 높이는(증진시키는) 정책을 펴도록 호소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1978년에 <인도 개발 계획국>과의 여러 번의 회합 끝에 나는 몇 가지 단순한 태양열기술을 예시해보이기 위한 조그만 시험(제) 연구일감을(프로젝트를) 요청하여 승인을 얻었다. 라다크는 일 년에 300일 이상

햇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양 힘은(에너지)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 연구 일감의(프로젝트의) 초점은 집을 덥히는 좋은(효과적)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보이는 용(예시용) 태양열 빵 굽는 솥과 온실도 만들었다. 다행히도 이름답고(우아하고) 단순한 난방용 태양열기술을 쓸(이용할) 수 있었다. 프랑스인 고안자의 이름을 따서 트롬브(Trombe) 벽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방법이 전통건축과 현지의 재료에 쉽게 쓰일(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쪽을 향한 벽(외부)에 두 겹으로 유리를 붙이고, 그것이 햇빛을 흡수하도록 검게 칠했다. 천장과 다른 벽들은 짙은 짙으로 덮었다.

트롬브 벽은 라다크에 생각보다(이상적으로) 알맞은(적합한) 것임이 밝혀졌다.(입증) 진흙 벽돌은 태양 힘을(에너지) 흡수하고 저장하는 뛰어난 재료(탁월한 소재)이다. 그리고 겨울의 낮은 햇빛은 딱 맞게(효과적으로) 실내를 덥혀주고, 한여름의 높은 햇빛은 벽을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집안

을 선선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오래가게(안락하게) 이어준다(유지해준다) 모든(전체) 설치비용은 약 300달러 정도, 다시 말해서 ‘조’ 한 마리 값이다.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쓰는 난방비가 일 년에 200달러나 되므로(있으므로) 이 설치비용은 두 난방 철이 채 안되어 보탬(벌충) 수 있다.

우리가 맨 처음(최초의) 트롱브 벽을 만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다소) 의심을 품었다.(회의적) 나중에는 가장(제일) 먼저 그것을 해본 사람이지만 훈족 다와는 “어리석게 굴지 말아요. 문을 열자마자 열이 새어나가 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며 비웃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집 벽을 세우고 있을 때 벽돌공들은 짙을 보고 몹시 재미있어 했다. 그들은 “생쥐 집 같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로 트롱브 벽과 그 밖의(기타) 태양열기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왔다.(증가해왔다)

라다크 지내던(체류) 첫해 동안 나는 언어학 연구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옛이야기를 모으며(민담을 수집

하며) 라다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개발을 반대하는데(반개발에) 함께 하고(연루되어) 있었다. 내가 라다크 말을 하는 하나뿐인(유일한) 외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서구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남달리(특히) 젊은 사람들은 현대 세계에 대한 분명히 과장된 그림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의 문화에 부끄러움을(수치심을) 가지고 도매금으로 싫어하기(거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잘못된 인상을 바로잡고 서구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내주는(제공하는) 것이 서구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쓸모 있는 구실(역할)임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되었다.

수도 없이 많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비공식적인) 대화와 자주 있는(빈번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서구에 관해 걸뭇만 살린(과장된) 모습(이미지)에 맞서 라다크를 편들어야(옹호해야) 했다. 그러한 과정

에서 반개발의 개념이 천천히(서서히)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만들어졌다. (형성되었다) 옛날부터(전통적으로) 연극은 인기 있는 오락물이어서(이였으므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효과 높은(적) 방법인 것 같았다. 사전 편찬을 함께 했던 계통 팔단과 함께 나는 몇 편의 연극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작품인 <라다크여, 뛰기 전에 잘 보라>는 우리 일의(작업의) 본질을 꽤 잘 간추리고(요약하고) 있다.

젊은 릭진은 옛 문화를 싫어하고(거부하고) 현대 서구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있는 힘을(최선을) 다한다. 그는 라다크 음식을 먹거나 버터차를 마시기를 싫어한다.(거부한다) 그는 자기 부모가 ‘구식’이라고 비웃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디스코에서 시끄러운 서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돈과 시간을 보낸다.(소비한다) 그는 청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다.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가 병이 났다. 릭진은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온

서구식 훈련을 받은 의사를 부르도록 부모를 조른다.(설득한다) 그는 의사에게 서구세계의 생활에 대해 질문을 퍼붓는다. 그러나 그는 놀랄 수밖에 없게 된다.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현대스런(적인) 사람들은 돌로 빵은 통밀빵을 먹지요. 그건 우리의 옛날부터 전해진(옛날스러운적) 빵과 비슷한데, 거기서는 흰빵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곳 사람들은 집을 우리처럼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천연재료로) 짓고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옷도 ‘100퍼센트 천연섬유’와 ‘순모’라고 쓰인 상표가 붙은 걸 입는 추세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폴리에스테일 옷을 입고요. 내가 기대한 것과는 아주(전혀) 달랐어요. 미국에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현대적) 것이라고 하면 옛날(전통적) 라다크 것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내게 ‘당신은 라다크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참 운이 좋군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500명의 라다크 사람들이 그 연극의 첫 무대를(초연율) 보려고 레의 공회당에 모여들었고, 연극은 큰 성공이었다. 나중에 개발관이며 지방 행정부의 최고 관리인 체왕 폰소그를 포함한 지역 지도자들이 문화(적) 자존심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설을 했다. 그러나 다른 반응도 있었다. 소남 팔조르는 언짢아했다. 그는 “당신은 과장을 했습니다. 사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슬픈 일이지만, 몇 해 뒤에 그는 자기의 아들이 연극 속의 젊은이와 실제로 똑같이 되었다고 말했다.

라다크의 말을 하는(언어를 통해서) 나는 그들의 생각과 그것을 풀어가 는 방법을(사고방식을) 알게(이해하게) 되었고, 그 사회에 섞여 들어갔다.(통합되었다) 서양의 방식이 라다크를 바꾸는(변형시키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나 자신의 문화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자본 그리고(빛) 힘을(에너지) 무조건 한데 모으려 는(집약적) 생활방식의 낭비와 도덕

없는(비도덕성) 내게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사람들을 서로 서로 갈라놓는 그런 종류의 개발이 만들어 내는(초래하는) 값비싼 심리(적) · 사회(적) 값어치에(대가에) 대해서 얼마간 알게(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유럽과 북미에서 강연 여행과 세미나를 시작했다. 옛날(전통적인) 라다크의 사회(적) · 생태(적) 균형을 자세히 그려내고(묘사하고), 개발이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고(붕괴시키고) 있는가를 말하면서, 나는 서구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얼마간 비출(조명할) 수 있었다. 나는 서구의 청중들에게 그들의 것과는 몹시 다른 원칙들에 뿌리를 둔(근거한) 문화를 헤어지게 하여(일별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사람답고(인간적) 오래 갈 수 있는(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이 있다는(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1980년에 이르러 서구와 라다크 의(에서의) 나의 활동은 <라다크 연구 일감(프로젝트)> 이라는 작은 국제(적) 조직으로 자라났고, 그것은 1991년

에 <비교행동학(예술로지) 그리고(및)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가 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생물이 보다 더 잘 살아가게 해주고(생태적) 모둠살이(공동체) 중심의 생활방식으로(향한) 발전을 부추기려는(권장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집중화에 반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교류를 더 늘리기 위한(중진을 통한) 진정으로 국제를 볼 수 있는(적) 시각을 바란 다.(권장한다) 우리는 또한 자꾸만 좁아지는 전문화가(로부터) 넓은(포괄적인) 관점이 되는(으로의) 바뀔(전환) — 갇혀있는(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관계와 맥락을 강조하는 접근방식 — 이 더 이상의 사회(적)·환경(적) 파괴를 막는데 꼭 있어야 한다고(필수적이라고) 느낀다.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연구를 하고(워크숍 운영하고) 강의를 하고 교육목적의 비디오와 출판물들을 만들어낸다. 거기에는 힘(에너지), 농업, 건강과 같은 핵심 분야의(에서의) 세계(적) 추세를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일련의) 문

건들도 들어있다. 라다크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둔(기초한) 이러한 자료는 세계(적) 문제들에 관한 논의를 내세우는(촉진하는) 쓰일 때가 많은(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일반적)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에서 일으킨(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훨씬 더 쉽게 마음을 연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강의를 할 때, 라다크 사람들의 웃음(미소) 띤 얼굴과 스스로가 넉넉해 보이는(자족한) 표정을 본 서구인들은 도대체 진보가 무엇인지 다시 평가하지(재평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연구 일감은(프로젝트는) 라다크에서, 세계에서 가장 ‘요즘 세상 같은’(현대적) 지역이 어떻게 좀 더 생물도 살아나는(생태적) 건전한 생활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내어준다.(제공한다) 우리는 보기를(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래 갈만한(지속가능한) 생활방식에 대한 실마리

를(모색을) 전해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면 라다크 사람들은 이러한 추세와 자기들의 예로부터 전해온(전통적인) 방식을 견주어 볼(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트롱브 벽과 라디오 프로그램과 연극에 반응하여, 한 무리의 라다크 사람들이 좀 더 오래 갈 만한(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찾는데(탐색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라다크 사람들을 가르치는(지도적) 사상가들을 대표한다. 대단히 성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헌신적) 사람들이다. 그들 속에(중) 많은 사람이 라다크 밖을 여행하고, 현대스러운(현대적)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전통 문화의 가치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다. 1983년에 우리는 <라다크의 생태(적) 발전>을 위한 그룹>이라고 공식(식)으로 등록을 했다. 현재 40명의 임원을 가진 이 모임은(그룹은) 라다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정부조직이 되었다. <라다크 연구 일감(프로젝트)>와 함께 모임은(그룹) 온갖 분야의 적정기술을 꾸준

히(계속하여) 개발·예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낼(수행)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요청들을 받고 있다. 트롱브 벽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간 난방을 위해서 태양열을 곧바로(직접) 받을 수 있다는 집합체도(시스템도) 만들었다. 그 밖의 태양열 기술로(중에는) 쌀과 채소를 익히고, 빵과 과자를 구울 수 있는 오븐과 온수기 — 두 가지가 모두 단순한 장치인데 — 그리고 겨울에도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온실이 있다.

우리는 또 누구나 알만한(표준적) 연관부품으로 우리의 기술임원들이 몸소(직접) 만든 수압펌프도 만들어(개발해) 내었다. 이것은 수입된 석유 대신에 중력의 힘을 써서(이용하여) 물을 끌어올린다. 우리가 처음으로 설치한 펌프 가운데(중) 하나는 마토 승원 꼭대기까지 150피트나 물을 끌어올렸는데 전에는 물을 등에 져 날라야 했던 승려들이 놀라고 감사해했다. 또 다른 사업은 옛날(전통적인) 물레방아를 새로 고쳐서(개선하여) 곡물을 더 빨리 빵을 뿐 아니라 기계의(기계적)

동력을 내주어(제공하여) 연장을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이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이래) 전력이(에 대한) 늘어나는데(증가하는데) 반응하여, 우리의 기술 연구는(프로그램은) 마을의 가정용 전등을 위한 작은 크기의(소규모) 수력발전 시설에 눈길을(초점을) 두어 왔다.

이 모든 기술(적) 대안은 경제로나(적), 환경으로나(적) 그리고 문화로도(적) 알맞은(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보다 사람에 적당한(인간적) 규모의 중심에서 벗어난(탈중심화된) 개발 틀을(패턴을) 부추겨주면서(장려함으로써) 예로부터 전해온(전통적인) 구조를 부수지(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많이(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특권 없는(비특권) 계층에게만 알맞은(적합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시 쓸 수 있는(재생 가능한) 힘에(에너지에) 바탕을 둔(기초한)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바른(적정) 기술은 결코 뒤떨어진(이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

국을 따지지 않고(마련하고) 사회가 오래갈(장기적인) 필요함을 쫓을 수 있는(부응하는) 가장 높은(고도로) 효과와(적) 효율(적) 해결책이다.

우리의 모든 연구 일감은(프로젝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수혜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보기를(예를) 들어, 우리가 터빈을 설치하려면 마을 사람들 자신이 장소를 고르는데(선택에) 참여하고, 원래 있던(기존) 물길을(수로) 새로 고치고(개선하고), 저수탱크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 한두 명의 마을 사람이 레에 있는 우리의 연구소에(워크숍) 와서 6개월간 그 시설의 운영 그리고(및) 보수방법을 배운다. 터빈이 설치된 후에는 그 마을이 조그만 발전소 건물을 세우는 책임을 맡는다.

그룹의 본부는 레의 중심에 있는 <생태(적) 발전중심(센터)>이다. 1984년 인디라 간디와 달라이 라마 성하의 참석과 함께(하에) 문을 연 이 센터는 우리의 작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고방식에 라다크의 정책결정자들과 외국 방문객들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목적에 이바지하고(기여하고) 있다. 그것은 라다크 안 뿐만(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방문객들은 정부관리, 언론인, 교사, 관광객에서 각계각층의 라다크 사람들에게 이르고 있다. 이곳에서 라다크 사람들은 외국 관광객들을 만나서(면대하여) 똑같은(대등한) 자격으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구에 대한 신비화가 깨뜨려지고, 외국인들이 오래된(전통적) 라다크 문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는지가 라다크 사람들에게 이해되면서, 두 문화 사이의 진정한 말을 주고받는데(의사소통이) 쉽게(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곳의(센터의) 건물 자체는 오래부터 전해지던(전통적) 라다크 건축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쫓아올(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보기(예) 된다. 건물의 일부가 태양열 난방이 되어 있고, 지붕 위의 태양열이 물도 따뜻하게 만들어줘(온수패널에

의해) 온수가 공급된다. 조그만 풍력 발전기가 비상전등을 위한 전력을 제공한다. 정원에는 태양열 요리기들, 건조기들이 진열되어 있고 태양열 온실이 있다. 이 모든 기술은 활발하게 쓰이고(사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림과 글로 설명하는 자료가 전시되어(비치되어) 있다.

그 곳에는(센터에는) 우리 자신의 태양열 화덕에서(오븐) 요리한 음식을 내오는(제공하는) 식당도 있다. 게다가 생태(적) 문제와 오래갈만한(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온 누리(전 세계적) 관심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이루어진 도서관도 있다. 우리는 또 거의 모든 알맞는(적정) 기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실도(워크숍도) 가지고 있다. 1989년에 우리는 지역의 자립을 돕고 사람들이 땅에서(오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막으리라는 희망으로 수공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농사일이 거의 없는 겨울 동안 수공예품을 만들어 내면서(냄으로써) 라다



크 사람들은 마을생활의 포기했던(예외한) 사회(적) · 환경(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해마다 라다크에 오는 약 15,000명의 관광객들은 현재 거의 빠짐(예외) 없이 라다크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고 라다크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기념품들을 사고 있다. 교실의(센터) 방문객들은 건물 밖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오래된(전통적) 연장을 써서(사용하여) 베를 짜고, 은세공 일을 하며, 목각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물 안에서는 재단사, 수예가, 화가들이 라다크 청년들에게 탕화와 모직으로 된 ‘곤차’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또 생태(적) 개발에 관한 라디오 프로그램들과 정규 출판물들을 포함하는 기초가 넓은 교육 연구 일감도(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그 출판물 중 하나는 라다크어로 된 세상에서 하나뿐인(최초의) 생태학 관련 서적이다. 자주 있는 모임과(빈번한 화합) 배울 수 있는 기회(워크숍), 연설들이(세미나) 우리의 교육활동의 중심

부분이다. 1986년과 1989년에 우리는 라다크 사람들이 선진 산업국들의 경험에 주목할 수 있도록 국제 회의를 조직하였다. 그밖에 온실과 태양열 화덕의(오븐의) 쓰임을(용도들) 의논하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조용히 모인(비공식) 집회에서부터 라다크 농업의 장래를 탐색하기 위하여 라다크 전역에서 수백 명의 농부들이 모이는 일 그 밖의(동) 여러(다양한) 모임이 있다. 우리는 또 불교와 모슬렘 교의 지도자들이 모두살이 사이의(공동체 간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모색하는) 하나의(일련의) 강연을(세미나들) 조직하기도 했다. 우리는 여성들이 모여서 수공예, 석면 위에 빵을 굽는 것의 위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사일 들에(동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모임을 주선했다.

농업 — 전통 경제의 기초 — 은 식량 보조금, 팔기 위해 키우는 농작물(환금작물), 농사를 그만두고 떠나거나(이농) 화학 비료와 농약을 들여오면서(도입으로) 위협받고 있다. 많은 라다크 사람들이 농업은 ‘시작하는

처음 같은(원시적) 직분이라고 믿게 되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이나(토양) 자신들의 건강에 미치는 숨겨진 힘과(잠재적) 오래갈 수 있는(장기적) 손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공장에서 만들어낸(인공적인) 첨가제를 쓰면(사용) 더욱 '현대(현대적)'와 가까워졌다고 믿는다. 모임과 뉴스 소식지들을 보고(레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세계적) 살아있는(유기적) 농사법에 대한 바른 생각이(인식) 커가고 있음을 알리고, 농업의 자리를(지위) 높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한다.(최선을 다한다)

마을 모임에서는 흔히 힘찬(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보기를(예를) 들어, 식티에서 있었던 농업 관련 강의에서(세미나) 한 젊은 발표자가, 젊은 이들이 오래된(전통적인) 농사방법에 대해 무지하고 그것을 깔본다는(경멸한다) 눈높이에(전해) 대해 사납게(격렬하게) 반박을 했다. 그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말을 가로챘다. "그래! 그 사람들에게 안장을 놓으라고 해봐요. 거꾸로

놓는다고. '조'에 멍에를 매라고 하면 겁을 먹고 달아나요. 그들은 고갯마루에 닿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값비싼 고무장화를 삽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따뜻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었고, 실과 바늘을 가지고 다니며 필요하면 무엇이랄도 당장에 고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다리로 버티고 서서 둘레에(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이용할) 줄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비교해 가면서 행동하는(에솔로지) 것이지요. 그게 아닙니까?" 라고 그는 우리의 임원을 보며(을 향해) 외쳤다.

이 연구 일감들은(프로그램) 주로 <라다크 연구(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라다크 발전 모임(그룹)>이 해나간다(수행한다). 우리는 또 <라다크 학생 교육문화운동>과도 함께 일한다. 1988년에 새로 만들어진(창설된) 이 조직은 젊은이들을 발전계획에 참여시키고 누구나 알아야 할(공식적) 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탐색하고자) 한다. <학생 교육문화운동>에 대한 우리의 지원에는 조금씩(부

본적), 이 조직의 지도자들을 뜻을 같이하는 인도와 유럽의 개인 및 단체들에게 소개하는 일도 더러 있다. 우리는 그들과 <라다크 발전 모임(그룹)> 회원들을 위해 연수여행을 마련했는데, 그 여행에서 그들은 산업화된 세계의 문제들을 얼마쯤 알게 되고, 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는(발생시키는) 반응들을 직접 본다.

해가 되풀이됨에(거듭함)에 따라 우리의 활동은 널리 퍼졌고(확산되었고), 분명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라다크가 군사(적)으로도 필요한(전략적인) 구역이므로, 보통(정상적) 외국인들은 그곳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의 체류 두 해째에 《힌두스탄 타임스》에 나를 “수상쩍게 짧은 시간에 라다크어를 배운 수수께끼의 여자”라고 그려내며(묘사하며), 나의 라다크 체류에 대해 무언가 알 수 없지만 꺼림칙한(불길한) 일을(동기를) 귀찮히는(암시하는) 기사가 실렸다. 수상과 주지사들이 친히 나를 만났고, 나를 후원하는 편지를 보내는 들들 그밖

에(등) 정부고위층에게(으로부터의) 꾸준한(계속된) 지원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러 정보관리들은 내가 이 민감한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CIA 요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보다 나중에는 내가 혼자서 1989년 모슬렘과 불교도들 사이의 집단 폭동을 일으켰다고(축발시켰다고) 기소되기도 했다.

게다가 우리의 일은 이제 막 현대 부문에서 일거리를 찾은 젊은이들, 남달리(특히) 관광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로부터의) 우리를 의심하는(회의적인) 태도에 부딪혔다. 그들은 현대(적) 것이라면 그 모두에 빠져서(현혹되어서) 우리의 환경교육 연구의(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시골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바로 줄 수 있는(적)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이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일은 역시 어려웠다. 뿌리부터(근본적으로) 다른 개발 노선을 만들어내고자 하면서 우리는 따라갈 본보기가(모델

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난처한) 문제들과 싸웠다. 우리의 노력들이 도움을 주기보다 나쁜(해롭) 되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은가? 라다크는 아무런(전혀) 개발이 되지 않으면 더 잘 살 것인가? 개발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개입 없이) 오직 라다크 사람 자신들에게서만 나와야 하는가? 전통 문화의 강점을 부수지 않고(파괴함 없이), 개발에 의한 변화들에 라다크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결과로(효과적) 맞설(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면서(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20년간 라다크를 짓눌러온 하나뿐인 문화의(단일문화의) 커다란(거대한) 경제(적) · 심리(적)... 무겁게 내리누르는 힘을(중압을) 잊지 말아야(명심해야) 했다. 세계 전역에 걸쳐 서구 같은(적) 이해관계는 산업하지 않는(비산업화) 사회를 둘러싸고(포위하고), 진정으로 그곳 본래의(토착적인) 개발을 거의 하지 못하게(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실제 삶의 맞부딪친 일은(상황은) 대단히 복잡하며, 나타나 보이는 것

은(표면적) 서로의 앞뒤가 다른(모순되는) 것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우리의 일에는 겉보기에 자신이 어긋난 곳이(모순이) 많이 있다. 보기를(예를) 들면, 우리는 실제로 라다크에서나 해외에서나 라다크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 사이의(간의) 만남을(접촉을) 부추긴다.(장려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한 연수여행 같은 실제(적)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은(커뮤니케이션) 그들이 서구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인상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라다크 연구 일감(프로젝트)>은 앞장서서(적극적으로) 중심에서 벗어나기를(탈중심화를) 다그쳐 나아가게(촉진)하지만, 사회 정치(적) 현실은 레에 그 본부를 두는 것이 알맞다고(합리적이게) 한다. 좋은 싫든 간에, 그곳이 바로 라다크의 앞날에(미래) 관한 거의 모든(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그 결정이 라다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우리의 끝이 정해진(제한된) 예산을 생각하면서(고려하면서) 그것은 또 가장 많

은 시골 사람들에게 줄(도달할) 수 있는 가장 경제가 잘 돌아가는(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태양열 난방이 생활수준에 명백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꾸준히 쓸 수 없는(지속가능하지) 다른 난방 방법 — 석탄과 기름 같은 — 이 벌써(이미) 옛날(전통적인) 관습을 무너뜨리고(붕괴시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외국 사람이 (국외자가) 그런 기술을 들여오는(도입하는) 것이 괜찮다고(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벌써(이미) 석탄과 기름이 쓰이고(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느꼈다. 보다 높은 생활수준이 경제(적) 독립이나 옛날의(전통적인) 가치를 놔버릴(포기를 뜻함)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으로(을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을 통한) 예시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러한 대안을 앞장서서(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었고, 자본 그리고(및) 힘을 한군데 모으는(에너지 집약적) 시설에서 다시 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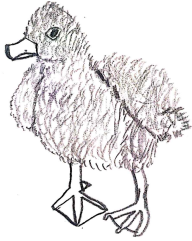
수 있는(재생 가능한) 힘에(에너지에) 기초를 둔 중심을 벗어나는(탈중심화의) 기술 쪽으로 지원을 돌리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우리가 이론 타협이 문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세세한(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결정과 활동들은 다룰 수도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면(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 쪽으로(향하고) 가고 있었다고 나는 확신하며,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교무적인) 신호들이 있다. 우리는 개발에 관한 장기적인 생태학(적) 관점, 다시 말해(즉) 자립과 자존에 바탕을 둔(기초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 ‘생태학’과 ‘태양 힘(에너지)’이라는 용어는 라다크 곳곳에서(전역에서) 지금 널리 쓰이고(사용되고) 알고(이해하고) 있으며, 환경과 라다크의 먼 훗날의(장래의) 복지를 깨어있는 판단으로(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 중 라다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식물연구가(원예가) 가운데 (중) 한 사람인 채왕 립진 라그루크는 유기농법으로 돌아가려는 — 손해를 보더라도 — 운동을 시작했다. <학생 교육문화운동> 소속의 소남 앙축과 소남 도르제는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헌신적인) 노력으로 (을 통해)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봉사에 몸을 바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권리인(특권적인) 출세 길을 포기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예외적인) 성실성과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선견지명으로) 라다크 곳곳에(전역에) 잘 알려진 소남 다와는 <라다크 생태발전 모임(그룹)>의 소장 일을 맡기 위하여 주정부의 고위직에서 빨리(조기) 은퇴하는 전례 없는 행동을 하였다.(취하였다)

라다크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전부터 전해오던 방식(제례식) 개발의 많은 함정을 피할 기회가 있다. 인구의 많은 부분이 아직 경제로(적)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작업이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라다크 속에서(내부에서) 이제 개발은 아주 다른 관점으로 비치고 있고, 바깥 세계에서 라다크 이야기 — 그 전통 문화의 성공과 생태(적) 개발의 본보기로서(모델로서의) 그 숨겨진 힘(잠재력) — 는 우리 모두의 이어갈 수 있는(지속가능한) 앞날을(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틀이(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데 도움을 준다.



▲ 2017. 9. 18 새끼오리 (장은결 11살)

## 알

## 림

## 니

## 다

## ※ 이오덕 선생님 새 책 알림

- 글쓰기 하하하 (284쪽 13,000원)
- 글쓰기 더하기 (312쪽 13,000원)
- 우리 모두 시를 써요 (288쪽 13,000원)

양철북 출판사가 내놓은 ‘이오덕 글쓰기 교육 선집’(전 9권)은 이오덕 선생의 글쓰기 교육을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저번 5월 18일, 선집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7일 선집의 네 번째 책 ‘글쓰기 하하하와 ‘글쓰기 더하기’, ‘우리 모두 시를 써요’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7, 8, 9권은 곧 나옵니다.

## 【글쓴이 소개】

##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 이오덕

1925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2003년 충북 충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1944년 청송 부동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 마흔두 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다. 1951년 부산 동신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를 가르쳤으며,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관념이 아닌 현재 살아 있는 것을 글로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로 자기 이야기를 솔직 소박하게 쓰게 하여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도록 한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현실 속에 이미 무한한 감동의 원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얻은 감동을 토해 내듯이 쓰면 시가 된다는 뜻에서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라고 했다. 1983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과 함께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만들었다. 글을 쓸 때 어린이와 백성들이 말하는 그 말을 따르고 살려서 써야 교육과 겨레가 산다는 믿음으로 1980년 중반부터는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 ※ 회계 보고 (10월호)

- 들어온 돈

8 / 21 이정호 2천원  
8 / 26 김석수 5만원  
9 / 20 이정호 2천원  
9 / 23 박미선 5만원  
9 / 28 이기주 10만원

- 쓴 돈

회보 100부 1통 발송비 630원씩 63,000원  
회보 만드는 값은 1권마다 3,000원씩 300,000원  
\* 10월호 들어온 돈은 204,000원이고  
10월호 나간 돈은 363,000원입니다. \*  
모두 363,000-204,000= 159,000원 부족합니다.

## ※ 알립니다.

\* 추석날이 한글날까지 이어져 8일 동안이나 쉬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 올해 안에 이오덕 선생님 선집 9권이 모두 나올 것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서점에서 주문하시거나 양철북 출판사 02-335-6407로 전화 주세요.

## ※ ‘우리말 우리얼’ 회비 보내실 곳

우체국 300731-01-001609 이정우(이오덕학교)  
- 1권에 3,700원. 1년에 6부가 만들어집니다. -  
우리말우리얼 구독료 : 1년마다 22,000원 입니다.  
우리말우리얼 누리집 : <http://cafe.daum.net/malel>



우리말

우리말

제  
95  
호

2  
0  
1  
7  
년

10  
월  
호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